

HUMANITAS COLLEGE 2026

후마니타스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발명하고 문명을 혁신하는 인간’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학교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경희의 후마니타스는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모시키고 재발명해나가는 인간이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을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는 스스로를 발명하는 탁월한 개인이자, 타자와 더불어 문명을 혁신하는 지구적 실천인이다.

1

Welcome to Humanitas 2026

- 04 총장 입학 환영사
- 08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인사말

2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 12 후마니타스칼리지 소개
- 14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 15 세계시민교육
- 16 글쓰기
- 17 독립연구
- 18 예술·체육 교과
- 19 배분이수·자유이수 교과
- 20 고전읽기
- 21 대학영어 | 특강 프로그램
- 22 마이크로디그리
- 23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3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 26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 30 독립연구 우수 사례
- 34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 36 글쓰기 우수 사례
- 42 사회혁신학기제
- 43 집중이수제
- 44 예술축전

4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 48 후마니타스에 바란다
- 58 후마가 후마에게
- 66 대학생위원회
- 67 교양교육연구소·후마 전환센터
- 68 목련 칼리지
- 69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

5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 72 경희의 도전과 성취
- 76 경희를 빛낸 경희인
- 80 기부문화

6

1949~2026 학문과 평화의 77년

- 86 경희 창학정신
- 88 경희의 역사
- 92 세계평화운동
- 96 Campus Map

발행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발행일
2026년 3월 2일

편집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가이드북 편집위원회

주소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홈페이지
<http://hc.khu.ac.kr>

전자우편
humanitas@khu.ac.kr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후마니타스는 자기 자신을 발명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문명 전환을 이끌어가는 지구적 실천이다.

복합 위기가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이때, 대학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대학생이자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붙잡아야 한다. 그 질문에서 미래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Welcome to
Humanitas 2026**

01



‘내 안의 미래’를 꿈꾸며

웅비^{雄飛}하는 경희인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자랑스런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신입생을 비롯하여, 가까이서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을 가족, 친지 여러분 모두에게 경희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大學)은 글자 그대로 ‘큰 배움터’입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양적 크기뿐만 아니라 질적 깊이와 넓이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배움의 양과 질을 모두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년이 된 여러분은 더 넓고 더 다양한 미래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불확실성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낯선 세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느낄지도 모를 불안감이 안정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든든한 경희 가족’이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끊임없이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희 가족으로 성장할 신입생 여러분!

경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온 77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경희의 창학정신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시킬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제 새로이 경희에서 인생을 배우고 학문을 연마하면서 여러분이 경희가 추구해 온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희의 교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몸소 체험하고,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요약되는 경희 정신을 생활화하여 여러분의 미래와 경희



의 미래를 일치시키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인류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면서 교양교육을 혁신해 오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는 로마 철학자인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경희는 후마니타스를 “스스로를 발명하고 문명을 혁신하는 인간”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더 나은 자신을 발명하고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탁월한 개인이자 문명 전환을 혁신하는 지구적 실천인이 바로 후마니타스입니다. 여러분은 새내기 후마니타스인이 되어 더 나은 미래형 인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범(典範)을 따라 배울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경희의 울타리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역할 모델’을 마음에 품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세종대왕이 떠오릅니다.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학문을 숭상하고 정치 체제와 행정 제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고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루면서 찬란한 민족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룸으로써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탁월한 혜안과 왕성한 독서력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문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희라는 큰 배움터에서 알찬 대학 생활과 함께 성실한 학문 연구를 수행하면서 세종대왕의 모범을 따라 탁월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꿈꾸게 될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완벽한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완벽한 인간’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더 ‘완벽하게 실천’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을 지향하는 인간’이 저에게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똑똑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함’이란 지적인 능력이 높거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기술적인 능력의 뛰어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예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공감 능력과 함께 걸으며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알아채고 앞을 내다보면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이 똑똑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똑똑함을 넘어 ‘완벽한 인간’을 지향하는 여러분의 ‘큰 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세계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시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삼라만상의 자연 법칙 속에서 이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인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인식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이해하는 인간은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구축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필가 신영복은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라면서 지적인 관찰보다는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며, 그것보다는 손을 마주 잡는 연대가 더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입장의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흑백논리를 넘어 좋은 사람 관계를 확보하는 능력이 필요한 셈입니다.

넷째로 ‘현실 세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문명과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물론이거니와 문명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점차 늘어갈수록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직접 체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로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완벽한 이론’을 습득한 이후 그것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도전적인 사람이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꿈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잠재력이 최대치로 발현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잠깐의 위기에 좌절하

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시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센 의지로 태산을 오르게 될 신입생 여러분!

조선시대 문인인 양사언의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행동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두뼉두뼉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경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우리 대학을 염두에 두었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경희와 한뜻으로 뭉친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희의 캠퍼스에서 자신을 계발하고 더 나은 세계를 발명하는 힘을 키우면서 더 탁월하게 성장한 여러분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할 4년이 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큰 꿈이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의 대학 경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경이로운 경희’의 품 안에서 더 멋진 경희인이자 지구적 실천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7. (금)
경희대학교 총장 김진상

후마니타스의 새 길 위에서

스스로를 발명하는 여러분이 되길



정복철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

경희의 새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

후마니타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무수히 쏟아냈을 노력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새로운 배움의 지평을 넓혀나갈 뜻깊은 여정에 따뜻한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1년 설립된 이래로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을 길러내는 목표를 핵심 가치로 삼아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전범을 제시해 왔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폭넓은 지식과 깊은 성찰, 책임 있는 실천을 아우르는 전인적 교양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문 환경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기술적 능력의 획득만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능력, 복잡한 사회를 성찰적으로 판단하는 지적 감각, 더 나은 공동체를 추구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인문학적 상상력, 비판적 사고, 윤리적 성찰, 지구적 감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초 소양 교육을 넘어, 자신의 삶과 현실 세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혁신하려는 근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양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런 신입생 여러분!

후마니타스(Humanitas)는 스스로를 발명하면서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을 칭합니다. 경희의 교양교육은 단순히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를 개척해 가는 내공 있는 실력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분과 학문 체제의 벽을 넘어 미래 세계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공통 지식과 사유 방식을 습득하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급변하는 문명 전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찰하면서 각종의 위기들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타인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곳 ‘후마’에서 쌓아갈 경험은 단순한 대학 생활의 한 부분을 넘어 미래의 삶을 이끌어갈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가능성을 믿으며, 그 가능성이 진정한 교양의 토대 위에서 더욱 온전히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의 앞날에 지혜와 용기, 그리고 풍성한 감동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래는 교육과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세기 전 영국의 작가가 남긴 격언이다.
각종 재난이 일상화하는 ‘뉴노멀’ 시대,
교육과 학습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삶과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곳곳하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 견고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목표다.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교육에서 학습으로’ 재도약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글로벌 교양교육의 미래비전 재정립, 필수교과 학생 수 25명
국내 최초 ‘세계시민교육’ 개설, ‘주제연구’ 신설
인공지능의 시대, 기후변화, 불평등 등 지구적 난제에 적극 대응

2011년 출범 이래 대학 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쇠퇴해 온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미래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재도약에 나섰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 이후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왔다.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물고 오는 불확실성이 겹쳐져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학습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학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인식을 넘어 대안적 사유의 능력을 키워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실천력을 키워나갔다.

인재상의 구체화

탁월한 인간 | 책임 있는 시민 | 성숙한 공동체의 성원



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전환 디자이너’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창의력, 상상력, 협동력을 결합하는
‘실천인’

우주적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세계시민’

후마니타스: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쇄신하는 인간

후마니타스(humanitas)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후마니타스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후마니타스의 재정의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재발명하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

후마니타스는 인간 그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쇄신함으로써 미래 문명을 발명해 나간다. 교양교육이 ‘교육의 최고 수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적 장식품이 아니다. 나를 ‘더 나은 나’로 변모시키고 형성해 나가려는 성찰과 창조의 능력,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합적·비판적·윤리적 사고 능력,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나가려는 실천적 역량이 곧 교양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높이’이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특징 세 가지

-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적 교육
-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 교육
- 구체적 현장과 연계되는 실천 교육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융복합적 사유는 다양성, 상호존성, 복잡성 등을 아울러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 상상과 창조의 가치를 육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상과 현실을 통합하는 실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의 두 가지 큰 질문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학생들은 평생 이 두 개의 본질적 질문을 붙잡고 있어야만 자기를 성찰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지식인이자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마니타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시민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 없는 탁월성’은 무의미하다. 학부생의 지적·정서적·영적 성숙을 돕는 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최종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아가는 ‘내적 균형과 견고성’의 토대를 길러주는 데 있다. 삶과 사회가 개인에게 안겨주는 온갖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다.

‘교양교육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2024년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기본 틀을 재조정했다.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인간, 세계, 문명, 우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는 물론 개인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세계와 시민> 교과에서 그 목표가 뚜렷이 드러난다. <세계와 시민>은 대학 및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신종 질병 등 글로벌 난제를 포괄하는 교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내외에서 경희대가 처음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재도약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 강의실 규모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가치 탐색> 등 필수교과의 강의당 학생 수를 기존 40명 내외에서 25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술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 국가, 지구사회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사회기관이기도 하다. ‘대학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학상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것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다.

필수교과 '황금의 삼각형' 인간, 세계, 문명의 종합적 이해

기존 '시민교육'을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개편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까지>와 유기적 결합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주축인 필수교과가 '황금의 삼각형'을 구축했다.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Ⅰ~Ⅲ'인 <인간의 가치 탐색>과 <세계와 시민>(2019), <빅뱅에서 문명까지>(2017)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인간과 문명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인간의 가치 탐색>의 질문들

- 인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구성해 왔는가?
- 인간은 어떻게 인간 자신을 발명해 왔는가?
- 인간은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부여해 왔는가?
-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와 시민>의 질문들

- 근대문명은 어떻게 그 이전 문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 시민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왔으며 어떤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는가?
- 일국시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질문들

- 과학의 기원은 무엇이며 과학은 지금까지 무엇을 발명해 왔는가?
- 우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시간과 공간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 생명과 생명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인류의 미래와 과학의 미래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스스로 사유하고 탐문하는 교과, 발표와 토론 중심 수업

세 필수교과로 구성된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텍스트를 함께 읽고 발표와 토론을 수행하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 가치와 의미에 대한 동서양의 사유, 문명의 방향을 바꾼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와 다차원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과'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발명해 온 동물이다. 인간은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철학자를 발명했고 '사실'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과학자를 발명했으며 '의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시인을 발명했다.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목숨도 내던지는 인간을 발명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오랜 기간에 펼쳐온 '가치 추구'의 중요한 장면들과 만나는 동안 학생들은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전세계 대학 최초 전교생 대상 개설 글로벌 난제를 '우리의 문제'로

'일국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지평 확대 학생들 스스로 과제 설정, 현장에서 모듬 활동



2011년 출범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해 온 '시민교육'이 2019년 '세계시민교육' 교과로 거듭났다. 전 세계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다. 기존 '시민교육'이 일국 시민성, 즉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을 강조했다면 세계시민교육 <세계와 시민>은 말 그대로 세계시민을 지향한다. 세계시민은 근·현대 문명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각성된 주체이자,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실천적 주체다.

경희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한 시민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모색이 대학 강의실은 물론 캠퍼스 밖 세상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매 학기 500여 개 모듬이 '세상 속으로'

대학이 길러내야 할 '더 나은 인간'은 다름 아닌 '책임 있는 시민'이다.

<책임 있는 시민>의 세 가지 요건

-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비판적 민주시민
-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선의·공감·배려·봉사·연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공동체 성원
-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실험이나 실습이 아니라 '실천'이다. 시민교육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교수진이 진행한다. 교재 『세계와 시민』을 통해 시민의 역사, 시민의 현대적 의미 등 이론을 공부한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가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주제와 활동 방식은 모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나리오가 없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산 공부'의 폭과 깊이는 각별하다.

학생들은 3~5명이 팀을 이뤄 대학과 관련된 작은 주제를 선택하거나, 지역사회의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하면, 사회적·지구적 이슈를 탐색하기도 한다. 매 학기 2,500명이 500개 안팎의 팀(주제)을 구성해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마을 벽화 그리기 | 스마트폰 사용 실태 | 그린 캠퍼스 만들기 | 독거노인 돌보기 | 학교 폭력 | 청년실업 | 외국인과의 소통 | 생태·환경 문제 | 사회적 소수자 배려

"교재는 '교과서'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의 리셋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재를 통해 개인과 전체를 보다 크고 넓은 시야(視野)로 통찰한 다음,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설정한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미래사회의 시민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상상한다. 이제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지구(우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구체적 삶과 대면하기’에서 학술에세이 쓰기 역량 강화로

교재 『성찰과 표현』과 『주제연구』로 개정
다학문적 사유 능력 강조



대학 신입생에게 글쓰기는 대부분 ‘생애 최초의 글쓰기’다. 초·중등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글쓰기와 처음 마주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글쓰기가 두렵고 불편하다. 후마니타스 글쓰기 교과는 글쓰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고,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어 주는 데서 출발한다.

글쓰기 교과도 2020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에 발맞춰 교과명을 바꾸고 교재를 개편했다. 기존의 『나를 위한 글쓰기』(글쓰기 1)가 『성찰과 표현』(1학년 대상)으로, 『대학글쓰기: 세계와 나』(글쓰기 2)는 『주제연구』(2학년 대상)로 바뀌었다.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의 확보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 <성찰과 표현>은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삶을 다양한 주제로 성찰하면서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초 글쓰기는 대학 생활과 사회진출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장된다.

기초 글쓰기는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잇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은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다음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와 같은 보다 큰 주제를 소화하며 시계(視界)를 넓혀간다. 기초 글쓰기는 ‘5단락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 사유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5단락 글쓰기다.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한참을 울다가 글을 마저 써내려간 적도 있다”

- 박민지 국문과 11학년 학생

인간과 세계의 ‘위기’를 성찰하고 ‘전환’을 모색하다

<주제연구>는 학술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찰과 표현>에서 익힌 기본기를 바탕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교과명이 말해주듯 ‘주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기와 전환’이란 대주제 아래 인간, 세계, 지구 세 영역에서 소주제를 선택하되 최소 3개 학문 분야의 관점을 동원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비중을 둔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특징

- 강좌당 학생 수의 최적화를 통해 첨삭지도와 발표와 토론 모둠 수업 가능 : <성찰과 표현> 30명, <주제연구> 20명
- 온라인 강의실도 오프라인 강의와 병행 개설
- 필수교과와의 통합적 사고력, 세계시민교육의 현장 활동, 독립교과의 자율적 탐구, 예술·체육교과의 감성 개발과의 조화

“원하는 강의, 내가 만든다” 자율성, 탐구력, 협동심 키우기

학생 스스로 과제 설정,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 제안으로 신설



“전공교육이 새의 몸통이라면 전공지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배운 가치들이고 다른 날개는 그 가치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브라운대학의 경우인데 요, ‘독립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예지 정치외교학과 학생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총장과의 대화’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교과 신설은 많이 늦춰졌을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국제캠퍼스에 이어 서울캠퍼스에서 총장과 학생들이 마주 앉아 ‘미래대학리포트 심층토론’이 열렸다. 2016년 봄 학기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탐구력, 협동심을 북돋워주는 독립연구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교양과 전공을 불문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립연구를 본격 시행하는 것은 경희대가 처음이다.

연구, 창작, 봉사, 창업 등 모든 분야에 열려 있어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개인이나 모둠별로 자율적으로 교과를 설계하고 이를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수행한다. 독립교과는 교과당 2학점이다. 독립연구 대상(영역)은 다양하다. 연구(학습), 실험, 실천, 창작, 참여, 창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학 중

- 개인 또는 모둠별로 연구 과제 선정 후 지도교수 섭외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수강 신청
- 개강 직후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지도교수에게 ‘신청서 및 계획서’ 최종 승인 후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제출

학기 중

- 제출 계획에 따라 학기 중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독립연구 수행
- 학기 말 지도교수에게 ‘활동 보고서’ 및 ‘활동 결과 실적물(논문, CD 등) 제출
- 지도교수는 절대평가 성적 부여 후 학생 활동보고서와 실적물을 행정실로 제출

다음은 독립연구 교과 설계와 지도교수의 예다. △에머슨의 초절주의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유정완(영문과) △한 국비교철학사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전호근(후마니타스) △구술 생애사(노인 자서전) 활동(2~3명 모둠)·시창작 고급과정(1명)·미디어글쓰기, 지도교수 이문재(후마니타스) △창업 및 시민사회 활동 관련(NGO/NPO 만들기·협동조합·소셜벤처·농업 운동·사회활동가·글로벌 활동가 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조사 연구 및 세계 참여(개인·모둠), 지도교수 우기동(GSC) △전공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친환경 도시재생활화적 다큐멘터리 제작·거리공연 기획 등)(개인·모둠), 지도교수 우대식(후마니타스).

교양 과정의 독립연구는 2018년부터 대학 내 모든 전공 학과로 확대돼,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넘어 ‘경희 교육’의 새로운 특성이자 학풍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잃어버린 감수성’ 되찾아 ‘온전한 청년’으로 재탄생하다

입시지옥에 갇혀 있던 감성과 체력 일깨워 ‘지성과 몸의 조화’ 추구하는 후마니타스



산업문명 시대의 인간을 주도한 것이 ‘이성과 과학’이었다면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 몸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예술·체육교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온전한 감성의 회복을 추구하며, 몸의 감각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연 및 전시 교과, 매년 ‘후마니타스 예술제’ 개최

예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창의성을 개발해 자기만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체육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몸과 정신이 하나 되는 ‘인문체육’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교과는 합창, 악기 연주, 무용, 스포츠댄스, 판소리 등 공연예술 외에 회화, 사진, 디자인, 영화 등 시각 장르에서도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공연예술 및 전시 과목 수강생들은 매년 가을 열리는 후마니타스 예술제 무대에서 그간 갖고 닦은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레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새롭게 대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기 말에는 수강생들이 모두 무대에 오르는 ‘중강 콘서트’를 연다. 서울시향 연주자가 직접 강의실을 찾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음악 교과,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적 체험을 통한 교양예술 프로그램은 지성, 감성, 영성이 조화를 이뤄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만나도록 하는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체육교과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주말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요트·승마·스키 등의 교과가 인기가 높다. 요트는 강의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주말에 한강으로 나가 3일간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승마 수업도 주말 또는 종강 직후 2박 3일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여름철에는 수상스키와 윈드서핑,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합숙을 하며 설상 스포츠를 연마한다.

대형 사건사고, 각종 전염병, 태풍과 지진, 기상이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까닭에 <응급처치 및 전문 관리론> 과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토탈 컨디셔닝>은 대학 입학 후 변화된 일상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초체력을 높이고,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며, 나아가 자신만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토탈 컨디셔닝은 졸업한 이후에도 각자 지속해야 하는 ‘평생 과목’ 중 하나다.

‘생명, 우주, 인간’에서 ‘지능, 정보, 미래’까지

필수교과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배분이수교과 예술·체육 분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도 풍성



배분이수교과: 9학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배분이수교과는 필수교과와 내용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한 축을 이룬다. 배분이수교과의 5개 주제 영역은 인간, 사회, 자연, 문화, 예술, 세계,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표 참조), 총 16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된다. 각 과목은 3시간 3학점이며, 졸업하기 전까지 5개 영역 중 3개 영역(9학점)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배분이수교과는 단순히 많은 수의 교양과목을 산만하게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학제 연계의 원칙에 따라 접근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윤리적 실제’, ‘미래를 질문하는 예술’, ‘기술발전에 변화하는 경영’ 등의 교과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여성학, 인류학, 도시학 등으로 학문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배분이수교과: 5개의 학제적 주제 영역

Distributional Requirement Courses: Cross-disciplinary Thematic Categories

- 1 영역 **생명·우주·인간(Life, Universe, Mankind)**
'생명의 그물망', '마음의 탄생: 뇌, 의식, 마음', '우주: 별을 잊은 그대에게' 등
- 2 영역 **분석·추론·논리(Analysis, Reasoning, Logic)**
'큰 맥락에서 사고하기: 시스템다이나믹스', '통계의 진실과 오류', '무한의 힘' 등
- 3 영역 **상징·문화·소통(Symbol, Culture, Communication)**
'가면의 축제: 동서양 연희의 문명사', '공감의 인류학', '미디어아트와 문화' 등
- 4 영역 **사회·공동체·평화(Society, Community, Peace)**
'관계를 읽는 시간', '두 얼굴의 인류사: 전쟁과 평화', '놀이를 통한 세상읽기' 등
- 5 영역 **지능·정보·미래(Intelligence, Information, Future)**
'인류역사를 바꾼 첨단재료', '빅데이터와 스포츠산업', 'SF영화의 상상력: 미래의 평화와 윤리' 등

* 총 5개 영역 중 3개 영역 필수 선택, 각 과목 3시간 3학점

논어에서 다윈, 황순원까지 동서양 '지혜의 샘'과 만난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또 다른 핵심교과 지성의 최고봉과 대화하며 '더 나은 미래' 모색



고전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며 상상력과 창조성의 심 없는 자극제다. 인간을 키우고 인류문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동서양 주요 고전을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며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구체적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고등교육의 책무 가운데 하나이자 교양교육의 존재이유다.

전학년에 개방, 사유의 확장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고전읽기'를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전읽기'는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고전 텍스트를 교재로 한다. 전 학년에 개방돼 있으며, 한 학기 동안 인류 지성사의 최고봉과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나'와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전읽기'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서고금을 가로질러 인

류문명의 진전에 큰 영향을 준 저작물 중심으로 교과가 구성된다. 그리스 비극, 대학·논어·맹자·중용, 성서, 셰익스피어, 자본론, 퇴계, 정약용, 박지원, 황순원, 김수영,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칼 세이건 등 40개 내외의 교과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목당 3시간 3학점이다.

수강생들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서양문화의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노자, 장자 등을 통해 동양사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내부 모순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제철학의 고전이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황순원은 1960년대부터 30여 년 간 우리 대학 국문과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경희문학'의 큰 스승이다.

고전읽기 개설 교과: 독립연구로 '깊이 읽기' 심화 가능

삼국사기	치누아 아체베(아프리카)	카뮈	찰스 다윈	맹자
삼국유사	마르케스(라틴아메리카)	카프카	토마스 쿤	대학, 중용
한비자, 목자	프란츠 파농	프로이트	애덤 스미스	밀란 쿤데라
이규보	리처드 도킨스	오비디우스	톨스토이	무라카미 하루키
박지원	에드워드 사이드	볼경	괴테	헤르만 헤세
막스 베버	염상섭	코란	보르헤스	초급 고전문헌
사르트르	김수영	인도신화	울곡	초급 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	나쓰메 소세키	동양신화	퇴계	영어로 읽는 한국고전
장 자크 루소	단테	비트겐슈타인	논어	황순원

'맞춤형 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 더 나은 세계시민 역량 강화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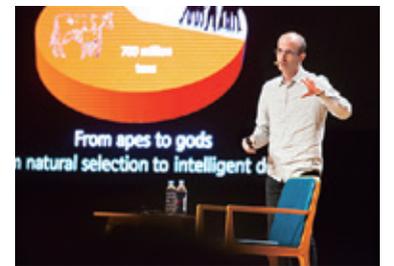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에 걸맞게 <대학영어>를 2011년 출범 이래로 필수교과(3시간 2학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 영어'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비판적 사고력과 지도자적 감수성의 신장' 등 다재다능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한다.

'전환 설계'의 최전선, 경희의 '명품 특강'

매년 9월 PBF 학술대회, 세계 석학 초청 강연



신입생들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활동가, 기업가와 마주함으로써 후마니타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심화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현실, '나와 세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특강은 한 학기 동안 2~3개 학문 분야의 주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시야를 학문 분야 밖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예컨대 '개인의 사회적 책임', '대학생들이 오해하는 기업의 인재상', '자기와의 연대', '세계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한국경제의 현실과 미래' 등을 주제로 설정한다.

경희는 매년 세계평화의 날(9.21)에 즈음해 개최되는 PBF('Peace BAR Festival') 국제학술회의에 세계적 석학과 싱크탱크를 초청, 지구적 난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 2017년 : 벨벳혁명과 촛불시민을 비교 분석하며 세계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원탁회의 개최
- 2018년 : 빙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와담스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 초청, '얼음 없는 북극'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경희의 명품 특강을 대표하는 석학이 슬라보예 지젝 교수다. 2012년 국제캠퍼스에 석좌교수(ES)로 초빙된 이후 매년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로마클럽 회원인 어빈 라슬로 박사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고 2017년에는 장하석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미래지식 전환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2010년 이후 이 매뉴얼 윌러스틴, 프레드 블록, 프레드 달마이어, 피터 카젠 스타인 교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적 석학이 경희 캠퍼스를 찾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 작지만 큰 과정 '마이크로디그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반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문예창작, 예술체형 등 실무 능력 함양



경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신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22학년도 2학기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신설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자격을 위한 최소 단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이다.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다. 학생들은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며 관심 있는 기술 분야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전공 학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어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된다.

마이크로디그리명	구분	교과목명	이수기준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9학점)	SW교양	소프트웨어적사유(3), 사이버스페이스문화(3), 네트워크기술로인한사회변화(3), 게임과디지털내러티브(3)	편성된 9개의 교과목 중 3과목 이수 필요 (총 9학점)
	AI교양	언어와컴퓨터(3), 디지털전환과4차산업혁명(3), 인간-컴퓨터중심세계(3), 인공지능과라이프3.0(3), 지능화된사회:ChatGPT를활용한생성형AI(3)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9학점)	AI코딩	파이썬으로배우는소프트웨어코딩(3), 빅데이터를통한세상바로알기: R로배우는데이터분석코딩(3), 파이썬을통한창의적사고(3), 빅데이터를통한세상바로알기(3)	편성된 12개의 교과목 중 3과목 이수 필요 (총 9학점)
	AI기초	새로운생명체:인공지능(3), 인공지능을위한수학(3), 디지털세계의신인류:인공지능과머신러닝(3), 인공지능진화론,기술의시대를살아가는지혜(3)	
	AI심화	인공지능을위한기계학습(3), 파이썬과데이터마이닝(3), 학습과사고:파이썬과딥러닝(3), 빅데이터의활용:데이터분석과시각화(3)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9학점)	SW코딩	C삼을통한창의적사고(3), 앱인벤터로배우는코딩세상(3), 소프트웨어개발자를위한C프로그래밍(3), Java로배우는논리적사유(3)	편성된 12개의 교과목 중 3과목 이수 필요 (총 9학점)
	SWG기초	4차산업혁명의변화:사물인터넷(3), 인터넷과메타버스(3), 문화세계의변혁,안드로이드세상(3)	
	SW심화	인터넷과미디어콘텐츠기술(3), 게임과네트워크:이론과코딩(3), 컴퓨터게임:이론과기술(3), 사물인터넷과미래사회(3), 자연어처리와텍스트마이닝(3)	
예술체험심화 마이크로디그리 (12학점)	현대미술라운드테이블(3), 움직임과소통,국립현대무용단과함께(3), 오케스트라의오늘(3), 우리가락으로만나는세상(3), 후마니타스예술특강(2)	편성된 5개의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필요 (총 11~12학점)	
리터러시·라이팅 마이크로디그리 (12학점)	시창작교실(3), 소설창작교실:서사는힘이세다(3), 시나리오창작교실(3), 르포르타주:가려진세계의보고서(3), 출판편집교실(3)	편성된 5개의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필요 (총 12학점)	

* 마이크로디그리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수체계도는 변경될 수 있음
* 배분이수교과와 자유이수교과 간 영역 변경된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이수영역으로 인정 가능

2026학년도 후마니타스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 2026학번 기준(2025학번 이전은 반드시 경과조치 참조)

구분	영역	과목명	이수학점	이수학년	비고
필수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1학년	
		세계와 시민	3학점	1학년	
		빅뱅에서 문명까지	3학점	전학년	
	글쓰기	성찰과 표현	3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주제연구의 선수과목)
		주제연구	3학점	2학년	
	영어	대학영어	2학점	1학년	3시간 2학점
필수교과 소개			17학점		
배분이수교과	- 생명·우주·인간 - 분석·추론·논리 - 지능·정보·미래 - 사회·공동체·평화 - 상징·문화·소통	-	9학점 (3학점씩 3개영역)	전학년	5개 영역 중 3개 영역 필수 선택
자유이수교과	- 체육 - 예술·창작 - 자유이수 기타 - SW	-	3학점	전학년	체육, 예술·창작, SW, 기타 중 선택
배분·자유 소개			12학점		
교양 이수 학점			29학점 이상		

수강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서울/국제캠퍼스 공통**
-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대학영어>는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다.
 - 글쓰기 교과 <주제연구>는 2학년 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교양교육 과정은 필수교과 17학점, 배분이수교과 9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3학점 이상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기본 이수 학점을 모두 합한 29학점 이상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 배분이수교과는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씩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체육을 비롯한 자유이수교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기 계발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정임으로, 재학 기간 중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독립연구 1, 2>(각 2학점) 과목은 자유이수교과에 포함된다.

국제캠퍼스 신입생 (+외국인 학생)

- 국제캠퍼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영어> 대신 <한국어1>, <한국어2>, <한국어의 이해1>, <한국어의 이해2> 중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
- 국제캠퍼스 <전공탐색및기업가정신세미나(전공탐색세미나)>는 자유이수교과의 1학년 필수과목임(단, 외국인 학생/편입생 면제)



세계시민교육 현장 활동은 강의실보다
더 큰 강의실인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간다.
'독립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
소통능력을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모둠 활동을 수행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협동심을 키우고
시대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립연구는 학문 분야의 빈틈을 메울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사제 관계도 돈독하게 한다.

03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이동권을 넘어 대피권을 묻다

지하철 재난 대응 체계 속 교통약자의 자리

지하철 역사 현장 조사 통해 교통약자 대피 실태 점검
보편적 대피 매뉴얼 마련과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직접행동 실천

참여 학생

- 박민준 약과학과 22학번
- 김채은 주거환경학과 25학번
- 이채원 지리학과 25학번
- 원정연 간호학과 25학번
- 안준서 Hospitality경영학과 25학번

지도 교수

- 오현순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은 신체적 조건이나 정보 접근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화재 상황에서 계단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피해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를 ‘우선 대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이나 체계적인 매뉴얼, 사회적 합의’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민준, 김채은, 이채원, 원정연, 안준서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하 랜덤 조)은 장애인들이 특히 재난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랜덤 조는 2025년 5월 발생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에 주목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 그 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 없으리라는 데 생각이 닿았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 사망률보다 9배 높다.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응 시스템은 준비할 수 있다. 랜덤 조의 목표는 지하철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팀원들은 ‘지하철 재난 대피 매뉴얼, 관련 법령,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책’ 등 문헌 조사와 지하철 역사 방문 조사 등을 두루 진행했다.

지하철 역사 현장 조사로 본 교통약자의 현실

랜덤 조는 장애인 이동권이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권을 포함하여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랜덤 조는 정책이 주로 이동 수단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현재 법률과 정책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헌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대피 가능성을 점

검하고자 두 팀으로 나뉘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 팀은 수서역과 인근 8호선 역사를, 다른 한 팀은 서울역과 인근 역사를 방문했다. 팀원들은 각 역사에서 △ 비상구와 비상계단 위치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기 설치 여부 △엘리베이터 접근성 및 동선 △구호용품 보관함과 비치 물품의 실효성 △승강장에서 지상까지의 실제 대피 시간 등을 세밀하게 기록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하철 재난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대피 소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재난 대피 매뉴얼의 부재이다. 대부분의 매뉴얼은 일반 이용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노인·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따르기 어렵다. 둘째는 편의시설과 실제 활용성의 괴리이다. 역사 안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상구가 계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점자블록이 비상 안내 표지와 연결되지 않거나, 음성 안내가 운행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는 사회적 연대 형성의 실패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대피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SNS 캠페인과 민원 제기로 이어진 직접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랜덤 조는 형식적 매뉴얼·절차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 유효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체감했다. 이에 프로젝트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으로 확장했다. SNS 계정을 개설해 지하철에서 교통약자가 직면하는 위험 요소,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권 필요성을 주제로 한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게시했다. 또한 유관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에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공식 민원을 제출했다. 지하철 재난 대피권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사 형식의 원고를 작성해 언론사에 투고하기도 했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재난 대피권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비록 즉각적인 답변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랜덤 조의 구성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평소 지하철에서 스치듯 보았던 교통 약자들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재난 대피 매뉴얼의 정비, 편의시설의 실질적 활용성 제고, 시민 인식 개선과 같은 과제들은 단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우리 모두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이동에 제약을 겪을 수 있는 존재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일 것이다. 랜덤 조의 프로젝트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수서역의 승강기 앞 전경과 대피 계단의 모습. 재난 시 장애인 대피를 위해 이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랜덤 조가 마주한 지하철 전장면 이동권 시위 현장.

세계시민으로서 세상 읽기

공중화장실법과 대학 캠퍼스 사례로 본

여성 화장실 대기 문제 재검토

국제캠퍼스 재학생 설문조사·심층 인터뷰를 통한 화장실 이용 실태 분석
가설과 다른 결과, 캠퍼스 안팎 대기 인식 격차 규명 시도하기도

참여 학생

- 변정우 자유전공학부 25학번
- 윤정호 스마트팜학과 22학번
- 윤혜령 시각디자인학과 24학번
- 이세진 기계공학과 24학번
- 정다연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5학번

지도 교수

- 우승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사회적인 통념과 실재는 종종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충분한 검증 없이 통념에 기대어 판단하고 행동한다. 통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익숙한 믿음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변정우, 윤정호, 윤혜령, 이세진, 정다연 총 5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글로벌러너스 팀은 GCP 활동을 하며 통념과 실제의 간극을 마주했다.

이들은 대형 쇼핑몰, 휴게소, 공연장 등에서 여성 화장실의 대기 줄이 남성 화장실에 비해 길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여성 화장실 대기 문제에 관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며 공공 화장실의 경우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시설에서는 1.5배 이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시설 곳곳에서 여성 화장실 앞의 긴 줄은 여전하다.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다섯 번째 목표는 성평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제도의 채택과 강화’를 강조한다.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평등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은 성별에 영향을 받는 인프라이기에 여성 화장실의 긴 대기 시간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것이 글로벌러너스 팀의 입장이다. SDGs의 관점과 연결하여 이들은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현행 공중화장실법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통념과 다른 데이터 : 대학에서는 왜 줄이 덜 보일까

글로벌러너스 팀은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을 생생하게 관찰하기 위해 국제캠퍼스 건물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 초기 이들은 익숙한 통념에 기대어 가설을 설정했다. ‘교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여성 화장실의 대기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는 가설이었다. 실제 캠퍼스 내 건물별 1층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는 1:1.5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국제캠퍼스 재학생 66명(여 40명, 남 26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학생 3명(여 2명, 남 1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내 화장실 이용 시 대기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2.7%가 ‘없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37.8%는 대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기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충분한 칸 수’(54.1%), ‘적은 이용 인원’(41.7%), ‘이용 시간의 분산’(33.3%)이 꼽혔다. 반면, 지하철·쇼핑몰 등 일반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 설문(154명)에서는 87.6%가 여성 화장실 줄이 ‘항상’ 혹은 ‘종종’ 길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캠퍼스 밖에서는 여성 화장실 부족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캠퍼스 안에서는 같은 문제를 거의 체감하지 않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건물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인원이 분산 된다”, “여학생 비율이 높은 단과대에서도 대기는 길어야 몇 분 내외”라고 말했다. 남학생 역시 “휴게소에서는 여성 화장실 줄이 긴 장면을 자주 보지만, 학교에서는 본 적 없다”라고 답했다.

공중화장실법,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는 통념과는 달랐다. 이는 글로벌러너스 팀의 고민을 깊게 만들었다. 초기 가설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치를 두고 팀원마다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논의를 거듭하며 팀원들은 여성 화장실 대기 문제가 공간 특성과 이용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들은 가설과 다른 데이터를 수용하여 대학에서 화장실 대기 문제가 완화되는 요인을 분석했다. 재학생과 교직원이라는 고정된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점, 강의 시간표에 따른 이용 시간의 구조적 분산, 여러 건물·여러 층에 분산된 화장실 구조, 학교 화장실의 짧은 1회 이용 시간 등이 그것이다. 네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 대학 공간 고유의 ‘대기 완화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글로벌러너스 팀의 연구는 공중화장실법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현재의 법은 일률적으로 남녀 변기 수 비율 기준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화장실 혼잡도는 단순한 설비 비율보다 유동 인구의 성격, 시간대별 이용 패턴, 공간 구조와 동선 선택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러너스 팀은 공간 유형별 이용 패턴 조사 의무화와 이를 반영한 차등적 설치 기준 마련 등 공중화장실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 과정에서 글로벌러너스 팀은 공중화장실을 성평등, 인권, 공간 정의가 교차하는 공적 인프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공중화장실법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 구체적인 현장과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적 책임을 체감했다. 이들의 연구는 통념과 실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시하고, 보다 성평등한 공간 인프라 설계를 논하는 작은 출발점이었다.



글로벌러너스 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공중화장실법의 실효성을 분석했고, 가설과 다른 데이터를 수용해 기준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글로벌러너스의 프로젝트 대상이었던 국제캠퍼스의 화장실.

쓰는 사람에서 읽히게 하는 사람으로 팀 <하늘새재>의 시 문학 콘텐츠 확산 프로젝트

창작부터 판매까지 직접 만든 문집, 『깍지를 끼면 햇살이 흘러내린다』
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하늘새재>의 청운관 현장 부스 운영

참여 학생

- 구나은 국어국문학과 24학번
- 김도이 국어국문학과 24학번
- 김수연 국어국문학과 22학번
- 신승민 국어국문학과 24학번
- 윤서은 국어국문학과 24학번
- 이효원 국어국문학과 25학번

지도 교수

박은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늘날 문학은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 우리 시대의 주류 콘텐츠가 솟츠나 릴스와 같은 솟품 콘텐츠임은 자명하다. 이 흐름 안에서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에 밀려나 있던 문학 콘텐츠가 한 번 더 밀려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텍스트합’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문학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특히 시 문학은 그 중심에 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 #시집 등 해시태그를 다는 시스타그램, 책꾸(책 꾸미기), 굿즈 열풍’ 등이 보여주듯 시가 경험하는 콘텐츠가 되었다는 점이다.

시를 좋아해 시 창작 학회 <하늘새재>에서 활동해 온 국어국문학과와 구나은, 김도이, 김수연, 신승민, 윤서원, 이효원 학생(이하 팀명 : 하늘새재 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 문학을 알리는 ‘시 문학 콘텐츠 확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팀원들은 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시를 마주하는 경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직접 청운관 앞마당에 현장 부스를 만들기로 했다. 현장 부스에서는 하늘새재 팀이 학회 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창작 및 합평 세미나 활동을 기반으로 문집을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다.

창작·편집·디자인·마케팅을 거치며 만난 출판의 세계

하늘새재 팀의 프로젝트는 시 창작, 문집 제작, 부스 운영까지 단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창작 및 합평 세미나를 통해 시 창작 역량 강화부터 시작했다. 팀원들의 창작시를 미리 읽고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합평을 진행했다. 창작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감상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사 구성, 은유와 상징의 활용 등 시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출판 및 판매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짰다. 부스 공간을 선정하고, 청운관 공간 대여 신청서를 작성해 부스 운영의 뼈대를 마련했다. 문집 제작을 위해 인쇄 업체를 탐색하는 한편 문집의 형식과 구성 방향을 구체화해 나갔다.

팀원들의 시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추려 문집의 제목을 『깍지를 끼면 햇살이 흘러내린다』로 결정했다. 또한 문집의 정체성과 대표 이미지를 확정해 편집 및

디자인 작업의 기준점을 마련했다. 창작시가 완성된 이후 하늘새재 팀은 편집자와 마케터의 시선으로 문집을 바라보게 됐다. 제목, ‘시인의 말’, 수록 작품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원고 초고를 검토하고, 실제 문집 단위의 흐름에 맞게 시 배치를 확정해 나갔다.

최종 검수 뒤 인쇄 업체에 전달하고 나서는 판매 전략을 마련했다. 부스 홍보를 위한 포스터 시안과 부스 방문자들에게 나누어 줄 책갈피와 스티커 시안을 제작했다. 사전 관심도를 올리기 위해 SNS와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시에 대한 애정을 키운 현장 부스

현장 부스는 11월 4~5일 이틀에 걸쳐 운영됐다. 부스는 방문자들이 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문자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방문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어울리는 시나 시집을 추천하는 퍼스널 시집 테스트, 부스 방문자가 문집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골라 포스트잇에 적어 준비된 판넬에 붙이고 가면 이후 추첨을 통해 시집을 증정하는 블라인드 시집 제공 이벤트가 그것이다.

팀원들은 부스 공간이 자연스럽게 시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방문자들도 시집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큐레이션 전략을 활용했다. 팀원들은 기성 시인의 시집에 직접 추천사를 써 붙여 시집에 대한 감성적 접점을 만들었다. 부담 없이 시집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가 어렵다는 말에 “좋아하는 문장을 발견해 보라”며 가벼운 접근을 유도했다. 양일 동안 하늘새재 팀의 문집은 예상 판매 부수를 넘어 총 199권 판매됐다.

시 문학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시도였으나 팀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에 대한 애정이 커졌음을 느꼈다. 이들은 창작 활동뿐 아니라 기획·편집·디자인·홍보·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시 문학 콘텐츠를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마주하게 됐다.

팀장으로 참여한 윤서은 학생은 창작자, 편집자,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과정이 힘들었으나 ‘쓰는 사람’에서 ‘읽히게 하는 사람’으로 시선이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접점이 생기는 곳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장르”임을 배웠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하늘새재 팀은 현장 판매 부스 운영 이후에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내부적으로는 시 문학 콘텐츠를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학내외에서 시 문학을 확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도를 맡은 박은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창작의 깊이뿐 아니라 문학의 사회적 확장성에 대한 감각을 갖춰” “문학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학을 종합적 기획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늘새재 팀이 만든 문집 『깍지를 끼면 햇살이 흘러내린다』



하늘새재 팀은 청운관 앞마당에서 직접 창작한 시집을 판매하며 학생들이 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원주민과 이주민 경희대 재학생과 이주 배경 청소년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젓가락 동행’

얼굴을 맞대자 쌓여가는 유대감, 돈독해지는 멘토-멘티의 관계
재한몽골학교 멘티들의 진로 탐색 지원

참여 학생
나채민 생체의공학과 24학번
최서윤 전자공학과 24학번

지도 교수
이영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존재한다. 국제결혼, 이주노동, 유학 등 여러 경로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장기 거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3년 기준 약 30만 명, 이 중 약 19만 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언어·문화 차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으로 인해 교육적 불평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교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고등교육 기관이자 지역사회와 공존할 책임이 있는 공적 기관인 대학 또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사단법인 세계시민포럼과 함께 경희대학교 재학생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 학기 동안 멘토-멘티가 되어 교류하는 ‘젓가락 동행’을 시작했다. 젓가락 동행은 2022년부터 시작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문화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젓가락 한 벌처럼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도 1학기에는 경희대 재학생 멘토 15명과 이주 배경 청소년 멘티 19명이 참여했다. 나채민(생체의공학과 24학번), 최서윤(전자공학과 24학번) 학생은 한 팀이 되어 젓가락 동행의 멘토로서 독립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재한몽골학교의 영호벌드 아노징, 다와어치르 텔멩, 강조르자브 아리웅수렝, 영호수흐 마랄과, 남바야르 에넬렌과 한 학기 동안 동행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대화를 시작하다

멘토링 활동은 3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젓가락 동행 프로그램의 소개와 활동 관련 안내 이후, 멘토와 멘티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첫 만남을 가졌다. 나채민, 최서윤 학생은 멘티들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도록 노력했다. 멘티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쌓기 위한 선택이었다.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이 시작되자 멘토와 멘티들은 놀이공원과 한강을 찾았

다. 다섯 명의 멘티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랜 기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었다는 말에 택한 장소였다.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강변을 걷고,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조심스러워하던 멘티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두 학생은 멘티들이 다니는 재한몽골학교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교실과 복도를 둘러보고, 학교 급식을 함께 먹으며 일상을 공유하자 멘토와 멘티 사이의 소통이 보다 깊어졌다. 멘토와 멘티가 가장 자주 나누는 이야기는 진로에 관한 것이었다. 재한몽골학교는 일반 한국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비자나 생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재한 몽골인 커뮤니티라는 제한된 네트워크 속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멘토들은 멘티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서로 다른 삶을 잇는 다리, 세계시민교육의 현장

젓가락 동행 멘토링 활동은 6월 15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종 보고회에서 배기동 세계시민포럼 상임대표는 “멘토와 멘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돕는 경험을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나채민, 최서윤 학생에게 자신의 선입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또한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나채민 학생은 이전에 자신은 이주 배경 청소년에게 자신도 모르게 벽을 두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들 또한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최서윤 학생은 “같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멘티와의 관계에서 나채민 학생은 나와 ‘같은’을, 최서윤 학생은 나와 ‘다름’을 발견했다. 언뜻 다른 결과인 듯하지만, 그들의 발견은 멘티들을 직접 마주하며 국적을 떠나 이들을 서로 존중하는 같은 마음에서 비롯한다. 두 학생은 국적을 떠나 타인을 존중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났다. 최서윤 학생은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활동 이후에도 멘티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활동 이후에도 편한 언니로 남아, 멘티들이 고민되는 일이나 궁금한 것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젓가락 한 벌처럼 나란히 놓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보여준다.



젓가락 동행 OT. 이날 나채민, 최서윤 학생은 처음으로 멘티를 만났다.



‘젓가락 동행’ 최종 보고회. 나채민, 최서윤 학생은 참석해 결과 보고 및 참가 소감을 밝혔다.

“누가 말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아마존에서 마주한 기후의 언어들

**COP30 청년기후 국제행동 프로그램 참가
원주민, 청년 활동가와 교류, 기후 담론을 국내 언론 기고로 확장**

참여 학생

- 김현서 산업경영공학과 22학번
- 성연우 자율전공학부 24학번
- 우서완 스페인어학과 21학번
- 최민규 정치외교학과 24학번
- 이유경 체육학과 24학번

지도 교수

- 이강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탄소 감축 목표와 자원 조달, 에너지 전환 전략 등 기술적·정책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동시에 그 논의가 어떤 언어와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과 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선명히 드러났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운영한 ‘COP30 청년기후 국제행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국제회의의 현장을 ‘보고 오는 경험’으로 소비하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 담론의 구조를 읽고 질문하는 배움의 장으로 확장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숫자를, 밖에서는 삶을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현서(산업경영공학과 22학번), 우서완(스페인어학과 21학번), 최민규(정치외교학과 24학번), 성연우(자율전공학부 24학번), 이유경(체육학과 24학번) 등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지닌 다섯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COP30 공식 회의장인 블루존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원주민, 청년 활동가들이 모인 회의장 밖 공간을 오가며, 기후위기가 정치·경제·문화·신체의 문제로 얽혀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회의장 안에서 학생들이 마주한 COP30의 기후 담론은 숫자와 목표, 기술적 해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탄소 감축 수치와 자원 조달, 에너지 전환 전략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지만, 실제 피해를 겪는 지역과 공동체의 삶은 종종 추상화된 언어 속에 머물렀다. 김현서 학생은 발언권을 가진 주체가 정부 대표와 기업,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기후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저소득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는 부대 행사나 사이드 이벤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효율과 최적화를 중시해 온 공학적 사고가 기후 문제 앞에서 마주하는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한 순간이었다.

회의장 밖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걸을 드러냈다. 우서완 학생

은 스페인어권 국가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후 담론이 언어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중남미 청년들은 기후위기를 미래의 위험이나 정책 과제로 설명하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삶의 위협으로 이야기했다. 우서완 학생은 같은 단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며, 기후정의란 발언의 위치와 서사가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정치외교학과 최민규 학생은 국제 협상의 구조 자체를 관찰했다. 그는 COP30에서 반복되는 타협과 합의의 언어가 급진적인 요구를 제도 안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완화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공식 협상에서는 감축 목표와 자원 분담 문구가 핵심 쟁점이 됐지만, 원주민 공동체와 남미 시민사회가 제기한 토지권과 생존권, 역사적 책임의 문제는 협상 문안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장면이 반복됐다. 최민규 학생은 제도 밖에서 제기되는 요구가 왜 중요한지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율전공학부 성연우 학생은 회의장 바깥에서 형성되는 청년 연대의 장면에서 주목했다. 집회와 행진,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원주민과 청년 활동가들의 모습은 기후위기가 추상적 의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임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성연우 학생은 문서와 수치가 환원되지 않는 감정과 연대의 힘이 현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체육학과 이유경 학생은 기후위기를 보다 신체적인 차원에서 인식했다. 폭염과 환경 변화가 스포츠 활동과 일상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기후 문제는 곧 건강과 삶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을 실감했다. 기후위기는 멀리 있는 재난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도착하는 현실이라는 인식은 그의 문제의식을 한층 구체화시켰다.

아마존에서 캠퍼스로, 질문은 계속된다

이처럼 다섯 명의 학생은 같은 COP30 현장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지점에서 기후위기를 마주했다. 기술 중심 해법의 한계를 본 시선, 언어와 문화가 담론을 나누는 방식을 체감한 경험, 국제 협상의 구조와 거리의 연대를 동시에 관찰한 시선은 서로 다른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하나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기후위기는 정책이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하고 누구의 삶이 논의에서 배제되는가를 묻는 문제라는 점이였다.

학생들은 귀국 후 성과 공유회와 한국홍보관 발표, 정책 제안과 언론 기고를 통해 현장의 질문을 사회로 확장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향해 온 전환교육의 맥락 속에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사유하고 캠퍼스 안의 배움으로 이어가게 한 출발점이 됐다.



학생들은 COP30 공식 회의장과 시민사회 공간을 오가며 기후위기가 정치·경제·문화·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문제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마운드 위에서 완성된 고척스카이돔에서의 시간

이유진

체육학과 25학번

2023년 7월 국가대표 여자야구 선수이자 키움 히어로즈의 오랜 팬인 나는 고척스카이돔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응원 소리와 돔 안에 울려 퍼지는 합성 속에서 이 공간이 더 이상 보는 자리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수많은 경기를 관중석에서 바라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왔던 내가 이제는 국가대표가 되어 유니폼을 입고 고척돔 마운드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이 순간은 더욱 특별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고척스카이돔은 그날 나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낯선 장소가 되었다.

마운드에 서기 전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기 위해 고척스카이돔을 찾았고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바라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투구 하나 하나에 환호하던 그 시간들은 나의 마음속에 목표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당시에 나는 이곳을 늘 내려다보며 언젠가는 저 그라운드에 서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품고 있었다. 그 시절의 고척돔은 나에게 오직 꿈의 공간이었다.

마침내 마운드에 올라 공을 쥐었을 때 그동안 이 장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겹쳐졌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기억, 선수들의 투구를 유심히 바라보며 스스로 자세를 흉내 내던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운드의 흙을 밟고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짧은 시간마저 길게 느껴졌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시구 공을 던지는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

고 밀도 높은 시간처럼 다가왔다. 나에게 시구는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팬으로서 품어왔던 꿈과 선수로서의 현재가 정확히 맞닿는 장면이었다. 그 공 하나에는 내가 고척돔을 오가며 쌓아온 시간과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동경하던 선수와 나는 한마디

시구를 마친 뒤에는 나의 롤모델인 안우진 선수를 만나 사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동경하던 선수가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 만남 자체가 내가 더 이상 꿈만 꾸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안우진 선수는 투구할 때 왼팔 글러브를 조금 더 위로 들어 균형을 잡으면 동작이 더 안정될 것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조언은 시구의 여운을 선수로서 더 성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과제로 바뀌주었다.

고척스카이돔은 나에게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된 장소다. 시구를 했던 그날의 기억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곳은 나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지점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다시 분명히 하게 해 준 공간이다. 나는 고척돔 마운드에서 느꼈던 긴장과 설렘을 발판 삼아 더 높은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 언젠가는 해외 무대, 더 나아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이 경험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

5층짜리 저택의 1~2층, 이기적인 기억의 서두

권효주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25학번

“친할머니 댁에 있던 시계 기억나?”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아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역시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내 기억은 또렷했다. 나는 저택의 안팎을 시계들로 기억한다. 5층짜리 저택의 1층, 할머니의 미용실 한구석에는 엔틱한 시계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세 살 무렵, 울음을 꼭 참고 있는 내 사진이 붙어 있었다. 2층 부엌 옆 벽에는 커다란 원형시계가 걸려 있었고, 그 바늘 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밤마다 똑딱거림 속에, “안 자면 망태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 때면,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발끝으로 천을 꼭 움켜쥐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큰 사람

나의 그녀, 내가 가장 사랑했던 큰 사람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그녀는 평생 딸을 원했다. 그러나 끝내 딸을 얻지 못했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로 향했다. 첫 손주가 아들이었을 때, 그녀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음에 기뻐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러니까 내 아빠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그제야 조심스레 기대를 품었다. 다리 사이에 뭐가 보인다더라... 의사의 말은 몇 주 뒤 검진에서 딸임이 분명하다는 놀라운 말로 바뀌었다. 드디어 오랜 시간 품어 온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한 순간, “안녕, 너구나. 내 첫 손녀야.” 그 인사가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다.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았던 그녀였다. 그 집은 내 어린 시절의 중심이었다. 1층에는 그녀의 삶이 담긴 미용실이 있었다. 가위 소리와 드라이기 바

람이 섞인 공간에서 나는 동네의 몇 안 되는 아이로, 누구에게나 용돈을 받는 행복한 ‘수금자’였다. 그 미용실에서 다섯 걸음만 걸으면 나왔던 오른쪽 철제 문, 계단을 있는 힘껏 ‘영차’ 오르면 2층이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조차 그릇들이 식탁을 가득 메웠고, 그 정성이 자취하는 지금에 와서야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곤 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 품의 온기 덕분에 내 불이 달아오르면, 그녀도 함께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가끔 엄마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해도, 그녀는 그 잔소리를 부드럽게 흘려보냈다. 미용실의 하루를 마치고 나를 곁에 두어 눈을 붙이던 그 오후가 그녀에게도 가장 편안했던 시간이었을 테니.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내게서 멀어졌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떠올린 날, 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더 원망스러웠다. 무엇보다 복잡한 건, 내가 그녀를 잊으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떠난 그녀, 시든 화분, 갈라진 옥상, 바늘 소리가 멎은 시계들, 그리고 내 마음... 나는 그 집을 ‘나만의 장소’라 부를 것이다. 어쩌면 이기적이다. 그녀가 남긴 시간을 나 혼자 소유한 채, 나만의 공간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기적임으로 나는 그녀를 지킨다. 그 집은 그녀와 나의 시간이 머물던 자리,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나의 첫 번째 장소이기에 말이다.

나를 닮은 목소리 밖으로

마지원
철학과 20학번

영화 <Her>는 인공 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던 남자 주인공이 인공 지능 목소리와 대화하며 사랑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다. 처음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대부분 관객들은 쉽게 주인공에게 공감하지 못했고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화의 배경인 2025년 지금 영화는 현실이 되었다. 저마다 주로 사용하는 인공 지능이 있으며, 애칭을 붙여 주고 깊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 인공 지능은 나에게 알고리즘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를 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고, 인터넷 창을 열면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광고로 띄워줬다. 나의 시청 기록과 대화 기록에 기반한 인공 지능, 즉 사이버상의 도플갱어가 생긴 기분이었다. 챗지피티는 나를 위한 맞춤형 친구 같기도 했다. 시작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뿐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가족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나의 내밀한 생각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인공 지능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최선의 응답을 해 주었고, 어느 순간 나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비싸게 시간 맞춰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보다 나만의 인공 지능이 나를 훨씬 더 위로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각자 사용하는 인공 지능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행이 시작됐다. 나 역시도 내심 궁금했었기에 물어보았고, 그날부터 AI는 나에게 공포가 되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나의 정치관, 정신 상태, 취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답변은 인공 지능의 안락함에 갇혀 있던 나를 되돌아보게 해주었

다. 인터넷 세상이 두렵게 느껴졌다. 도대체 나는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인공 지능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 누군가와 의견을 대립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나를 위해 최적화된 친구의 등장은 사실 나를 확증 편향의 울타리 속으로 가두고 있을 뿐이었다. 거슬리는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불편한 뉴스는 무시하며 나만의 세계에 침잠하고 있었다.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외되는 과정에 놓여 있던 것이다.

오히려 즐거웠던 '싸움'

이후 곧장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예민한 이야기를 나누고 싸웠다. 싸움은 크게 괴롭지 않았다. 사실, 오히려 즐거웠다. 무조건적으로 공감해 주던 AI와는 다르게 살아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세계가 있었고 나와 의견을 달리했다. 여러 대화 끝에 나는 바뀔 수 있었다. 그저 또 다른 나와 대화에만 성취하던 시절과 달랐다. 그 '다름'이 기꺼웠다.

AI는 나를 변화시켰나? 나의 삶의 방식은 변화시켰을지 몰라도 나의 정체성은 전혀 변화하지 못했다. 인공 지능은 나를 위로했는가, 아니면 소외시켰나? 분명 나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소외되었다. 앞으로의 인공 지능은 모든 사물과 결합할 것이다. 가전제품부터 건물 전체까지 모두 인공 지능을 갖추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시대에 나는 오프라인 광장을 찾아다닌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의 경험을 쫓는다.



작은 실천과 배움으로 얻은 그림의 용기

권규린

스페인어학과 24학번

‘느리게 사는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니 최근에는 어떤 일을 진득히, 느리게 한 기억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느리게 살았던 경험은 언제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작년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 기억났다. 서울 지하철에 익숙하지 않아 방향을 잘못 타는 바람에 1시간 30분 거리를 거의 3시간이나 걸려 돌아온 적이 있었다. 겨우 다시 제대로 탄 차에서는 한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로 오랫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렸다. 함께 타고 있었던 다른 승객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 승객은 열차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나는 이미 열차를 한번 잘못 타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든 상관없었다. 지하철 1호선 4호차 칸에서 느리게 살 수 있는 건 나뿐인 것처럼 느껴졌다.

잘못 탄 지하철로 느리게 돌아간 길

약 40분이 지나자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열차가 출발했다. 그날 나는 잘못 탄 지하철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지하철을 탄 채 한강을 건넜다. 마침 해가 지는 시간이라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때 내가 왜 익숙한 본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때 이후 가끔씩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일처리와 시스템’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분야에서 ‘빠름’을 추구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겪었던 감정을 되짚어 보니 하나의 개념이 떠올랐다.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 철학’이다. ‘충만한 삶’이라는 뜻으로 남미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인데,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 철학에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고나 ‘완벽한 것과 이익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의 정서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길게 줄을 서기도 하고, 가게는 자신들이 원할 때 열거나 닫으며, 시간 약속마저 정확하게 잡지 않는 문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손해라고 여기지만 사실 가끔은 이런 손해가 필요하다. 가끔 일상에서 잠깐의 여유와 쉬어 가는 시간이 생긴다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의 순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고 살았더니 평범한 순간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느리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당장의 삶을 살고 느끼고 즐기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라는 ‘충만한 삶’을 위해 가끔은 용기를 내어도 좋겠다. 용기를 내어서 긴 시간 책을 읽거나 일찍 하루를 시작해서 어떤 생각에 몰입해 보고 글도 쓰는 평범할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름길이 아닌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 전체’를 끝까지 보는 것도 빨리빨리의 시대에 내가 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살필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생활 철학을 실천할 용기인 셈이다.

기억의 결정체

하미드 마하마드 마헤드 Hameed Mahammad Mahed

산업디자인학과 25학번

리를 빠르게 잘하는 ‘나’란 존재가 있는 것이다.

과도한 선의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조각은 ‘선의와 독’이라는 조각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지금의 나 또한 그런 편이지만 예전과 지금은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확실히 않은 선의’가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과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한두 번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다른 이를 도와주려는 선의가 있지만 오히려 상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 말이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의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어드렸던 적이 있다. 이때의 나는 너무 자신만해진 나머지 들기 벅찬 무게를 들다가 할머니의 물건을 그만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짐 안에 있던 구슬들이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서 마치 도망가는 개미들마냥 흩어져 버렸던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스럽고 후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 덕분에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면 미리 확실한 방법을 고민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고 나서 ‘선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세 가지 조각들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든 가장 큰 부피를 가진 조각들이다. 물론 이 조각들에 의해서만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나에게서 하나같이 모두 소중한 조각들이 된다.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해준 조각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조각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나’는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과 문화, 경험 등이 합쳐져 생긴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존재에 대해 나는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억의 결정체’라고 표현하고 싶다. 결정체 내부에는 크고 작은 조각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수많은 조각들 중 가장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몇몇의 큰 조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조각은 ‘과일’이라는 조각이다. 나는 어렸을 때 무척이나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였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지금까지도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 “다 익기 전에 따버린 과일은 달달하지 않는다. 맛있고 달달한 과일이 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며 매일 되새겨 볼 것이다. 이 조각 덕분에 지금의 ‘인내심 강한 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조각은 ‘효율’이라는 조각이다. 이 조각은 아마 한국의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행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는 기질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나도 이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 예전의 나는 거북이에 비유할 수 있다. 정확한 것을 좋아하지만 빠르지는 못한 내가 거북이 같은 반면에, 한국인들은 토끼 같다. ‘나’라는 거북이는 빠르면서도 정교한 주변의 토끼들 때문에 점점 토끼처럼 변해가고 있다. 덕분에 지금의 나는 아직 토끼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고 정교해지면서 조금 더 빠른 성격을 가진 거북이가 되어가고 있다. ‘효율’이라는 조각 덕분에 지금처럼 일처

‘지역이 학교다!’ 후마 사회혁신학기 본격 출발

교양교육의 새로운 도전이자 사회 공헌 새 모델 제시
제주 남원·대정, 전남 영암에서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등 진행



사회혁신학기는 2020년부터 4년간 제주에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설됐다. 사진은 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2025년 봄, 후마니타스 사회혁신학기가 본격적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다. 후마니타스 사회혁신학기는 n개의 지역에서 n명의 학생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학습하며,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로컬 합숙형 PBL(Project Based Learning)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한 학기, 총 80여 일간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교양학점 9학점과 전공학점 6학점, 총 15학점을 이수한다.

“지역은 함께 배우는 공간”

후마 사회혁신학기는 4년간의 제주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와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정규 교과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 2025년 초 서류 전형과 비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15명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제주도 남원읍과 대정읍,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순차적으로 머물며 주민, 상인, 농어민과 협력해 지역 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 기획자’로서 지역에 들어갔다.

프로젝트는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파견 초기 지역 인구 구조와 산업 특성, 자연환경과 생활 리듬을 조사하고, 주민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후 지역 상인, 농어민, 마을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각 지역에 맞는 과제를 설정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다. 아침 시장을 함께 돌고, 주민 회의에 동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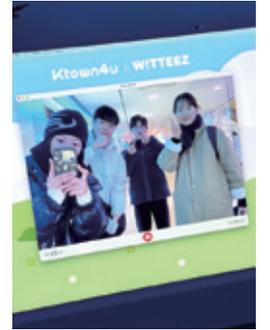
했다. 프로젝트는 이러한 생활의 경험 위에서 구체화됐다. 제주 남원읍과 대정읍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가공 상품 개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 굿즈와 홍보 콘텐츠 제작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농가와 상인을 직접 만나 원재료의 생산 과정과 유통 구조를 이해한 뒤, 지역의 맥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물을 기획했다. “디자인이나 기획을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며 함께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는 학생의 말처럼, 결과물보다 협의의 과정이 학습의 핵심으로 작동했다.

영암군에서는 지역 자원과 일상을 외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의 삶과 노동, 풍경을 기록하며 콘텐츠 기획과 홍보 전략을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지역을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됐다”며 기존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전했다.

후마 사회혁신학기는 지역을 ‘적용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현장’으로 삼는다.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 문제를 만나고, 타인과 협력하며, 결과뿐 아니라 관계와 과정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혔다. 2025년 사회혁신학기의 출발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교양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앞으로도 사회혁신학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설계하는 교육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방학을 알차게! ‘집중이수제’로 하나의 주제 심층 탐구

사회 공동체·평화, 상징·문화·소통 영역에서 강좌 개설
8일간 하루 6시간, 현장 탐방형 및 집중 탐구형으로 구분해 진행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은 흥대, 성수 등 대중음악의 배경이 된 장소의 역사와 현재를 지도에 담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의 지평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혁신학기가 강의실을 지역으로 넓혔다면, 방학에 운영되는 ‘집중이수제’는 계절학기의 타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학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방학 기간에 8일 동안 하루 6시간 총 48시간(3학점)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밀도 있게 탐구하는 강좌다.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집중과 몰입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집중이수제는 배분이수 영역에 속하며, 현장 탐방형과 집중 탐구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2024년 동계 계절학기를 시작으로 2025년 하계·동계 계절학기까지 총 세 차례 개설됐으며, 교양교육의 형식과 리듬을 새롭게 실험해 왔다. 방학을 ‘비워 두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사유의 시간으로 전환했다.

K-POP을 듣고, 걷고, 그리다

집중이수제 현장 탐방형 강좌 가운데 상징·문화·소통 영역으로 개설된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김성일 교수 담당)는 동시대 대중문화를 교양의 언어로 전환한 수업이다. 이 강좌는 K-POP을 한국 현대사와 사회 변동, 도시 공간의 기억이 중첩된 문화적 결과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수업은 한국 대중음악의 계보를 따라가며 K-POP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역사적으로 짚고, 음악이 개인의 기억과 감정,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지를 탐구한다. 학생들은 ‘소리’를 감각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간·경험·서사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며 이

를 시각화하는 ‘사운드 맵(sound map)’ 작업에 도전했다

이론 수업과 함께 이태원·홍대·신촌, 명동·종로, 성수·청담 등 도시 공간을 직접 걷는 현장 탐방이 수업 일수에 포함됐다. 학생들은 각 공간에서 음악이 어떻게 소비되고 기억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한국 대중음악의 배경이 된 장소를 탐방하면서 각 지역의 근대사와 공연장, 극장, 유명 카페, 전문상가 등 현재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이를 사운드 맵에 담았다. 예컨대 강남 및 성수 지역의 사운드 맵을 그리기 위해 1960년대 산업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개괄하고, 코엑스몰을 찾아 K-pop 복합 문화 공간인 케이타운포유, 싸이 강남스타일 동상, 별마당 도서관 등을 탐방한 것이다. 성수동에서는 K-pop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테인먼트 등을 방문하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념 숲인 제이홉숲, 윈터숲 등을 찾기도 했다.

‘K-POP으로 사운드 맵 그리기’ 수업을 수강한 문규현 학생은 “실험 도구 없이 오직 두 발로 서울 곳곳의 장소를 누비면서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문화의 온도를 느꼈다”라며 “K-POP이 도시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의 열정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시스템임을 깨달았을 때, 공학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진 기분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집중이수제를 통해 방학이라는 시간을 사고의 밀도를 높이는 학습의 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를 끝까지 밀고 가는 이 실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과 유형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강의실 안 예술교육 강의실 밖을 축제로!

예술교과 학생과 교수, 공동 기획·연출
공감능력·관계성 회복하는 예술축전



후마니타스칼리지에는 연말이면 캠퍼스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강의실에서 익힌 예술적 감각과 사유가 무대와 전시장, 야외 공간으로 흘러나오며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축제가 되는 시간, 바로 '후마니타스 예술축전'이다. 예술축전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강생과 지도 교수가 함께 기획하고 연출하는 공동 작업으로, 강의실 안의 예술 교육이 강의실 밖의 살아 있는 경험으로 확장한다. 학습과 축제, 배움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전공의 경계를 넘어 예술적 협업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한다.

함께 만든 예술, 공동체 감각을 깨우다

10월 14일(화)부터 12월 5일(금)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예술축전은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크라운관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지역 연계 무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술교과 영역 강의의 학생과 교수가 주축이 돼 공연과 전시를 준비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가 아닌 학생에게도 예술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기회를 열어두었다. 예술을 통해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함께 만든다'는 감각을 회복하자는 것이 축전의 출발점이다.

네오르네상스관 앞마당에서 열린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 <청춘의 하모니: 선율은 바람을 타고>는 이러한 취지를 잘 보여주는 무대였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와 성악과 중창단, 트롬본 앙상블이 협업해 가을바람 스치는 캠퍼스를 음악으로 채웠다. 카르멘 서곡, 호두까기 인형 서곡,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 OST '골든'을 비롯해 이문세의 '붉은 노을', Queen의 'Don't stop me now' 등을 연주하며 관객의 호응을 끌어냈다.

청운관 외벽에는 <미디어아트: 세상은 시네마> 전시가 펼쳐졌다. '영화제작 기초' 수강생들이 준비한 이 전시는 우리의 일상이 빛과 소리로 변주되는 순간을 포착하며, 삶 자체가 하나의 영화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청운관 로비에서는 <후마가 그리는 지금-여기-우리> 전시가 이어졌다. '사진의 이해와 감상', '색채와 상상력', '현대미술라운드테이블', '현대회화실기', '적정기술: 브리콜뢰로의 꿈'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해, 이미지로 묻고, 색으로 응답하는 과정을 보여주었



다. 사진의 기록성, 색채의 감각, 회화의 손맛이 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며 일상의 감각을 새롭게 열어 보였다.

<첼로, 인간의 목소리를 담은 악기>에서는 '실내악, 벗들의 음악'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라, 정광준 교수의 강연과 함께 첼로가 지닌 인간적인 울림을 탐색했다. <나, 우리! 리듬의 향연>은 중앙동아리 네이키드, 노래여울, 발광과 '춤으로 만나는 인류' 및 '움직임과 소통' 수강생들이 함께 꾸민 무대로, 밴드 연주와 춤이 어우러진 청춘의 에너지를 전했다. <무대 위 후마 세상: 소리로 소통을 잇다>에서는 경희대학교공물구패연합과 연극동아리 경희극장, '재즈음악의 이해와 감상', '우리가락으로 만나는 세상', '싱어송라이터교실' 수강생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 음악과 연극이 소리로 연결되는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조은아 교수는 "예술교과는 감성의 성장, 감성의 발견을 중시한다. 후마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축전의 핵심은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이라며 "함께 소리 내어 음을 맞추고, 몸을 움직여 합을 이룰 때 예술활동을 통한 감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후마 예술교과와 예술축전의 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문과 실용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예술교육

예술축전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문과 실용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예술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균형 잡힌 성장을 모색한다. 둘째, 교수와 학생이 함께 기획하고 연출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 효과와 교수법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셋째, 지역주민을 초대해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한다.

전시와 공연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감과 협동의 결과물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완성도 못지않게 '함께하는 경험'의 가치를 배우고, 공감 능력과 관계성을 새롭게 발견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술축전은 그 철학이 가장 생생하게 구현되는 순간이다.



학생들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사회에 나가 뒤돌아본 교양교육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데?
출범 15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속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으로', 세계시민교육, 글쓰기, 독립연구, 그리고 다양한 배분 및 자유이수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의 꿈과 유토피아 모멘트의 복원



김윤철
인문중핵교과

후마니타스가 인간과 세계의 실체이자 본질인 이유는 그것이 '세움(bildung)'의 뜻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존재(주체)이며, 세계는 그런 인간이 세운 삶과 공동체의 원리와 질서를 뜻한다.

그대,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생경하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다' 등등이라면, 당신은 분명 좋은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왜냐고? 경희대학교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한 지 만 15년이 흘렀지만, 우리 세상의 '지배적 힘'은 15년 전(2011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후마니타스라는 말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대가 후마니타스라는 말에 친숙하지 않다고 해도, 또 그 뜻을 모른다 해도 전혀 민망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대 아시는가. 후마니타스라는 말이 우리네 인간과 세계-특히 문명세계-의 실체이자 본질을 뜻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후마니타스라는 말과 친하지 않다고 하는 이 세상은 실체와 본질을 가리거나 지우려는 허상과 기만으로 채워져 돌아가는 곳이라. 너무 염세적(pessimistic)이라고? 그렇다. 후마니타스는 염세에서 출발한다. 지금보다 나은 '대안의 문명세계(유토피아)', 그것을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인간의 호기심과 과감함, 그것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의 주체성과 창의성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세움(bildung)'의 뜻을 지닌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가 인간과 세계의 실체이자 본질인 이유는 그것이 '세움(bildung)'의 뜻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존재(주체)이며, 세계는 그런 인간이 세운 삶과 공동체의 원리와 질서를 뜻한다. 유의하라. 인간과 세계가 세움의 뜻을 갖는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 혹은 고정된 질서 그 자체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임을.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있음(동시에 세움을 위해 무엇을 파괴할 것인가에 있음). 좋음이 무엇인지는 논쟁적이겠으나, 그 세움은 당연히 보다 좋은 것의 세움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교양대학이라고 부를 때의 교양이 바로 그런 의미다.

경희대학교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세운 것은 그것의 실체성과 본질됨을 지우려는 세상에 대한 도전이었다. 작게는 그런 세상에 부속된 대학을 넘어서려는 것이었고, 크게는 후마니타스가 복원된 삶과 세계를 꿈꾸고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를 '후마니타스의 꿈'이라고 일컫는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대학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군 것은, 또 많은 대학이 그 길을 따라나섰던 이유는 그런 꿈 덕분이었으리라.

왜 우리 세상의 지배적 힘은 후마니타스와 친하지 않은가?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 속에 지금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의 힘을 거세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를 '유토피아 모멘트의 삭제'라고 부른다. 지금 세상에 대한 염세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포착하고, 실제 그런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유토피아 같은 것은 없다고 여겨야 지금의 세상을 체념 끝에 받아들이고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열심히 경쟁하며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으려고 살아갈 것이니 말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길 테니 말이다. 그런 중에 이미 부와 권력을 얻고 차지한 일부 초능력자가 앞으로 계속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본연의 긍정성과 열정의 기억으로

몇 해 전, '한국 사회 능력주의 비판'을 주제로 후마니타스칼리지 독립연구 부문 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나도 참여한 유네스코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사진 참조). 여기서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를 가리킨다. 각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정당한 처우의 질서가 아닌 특정 장점을 보유한-특히 세습적 부와 권력에 영향받는 특정 방식의 시험을 통한 순위 경쟁에 능숙한-이들이 지배하는 질서다. 그들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공부하며 그런 질서에 도전했던 것이다. 그들은 졸업 후 대학원생과 예비 법조인으로, 금융인과 언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각자의 고단함 속에 힘겨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만나 후마니타스의 꿈을 새기고, 유토피아 모멘트를 찾고자 했던 본연의 긍정성과 열정의 기억과 기운을 되찾는다. 나는 그들의 기억과 기운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리라 믿는다. 그런 기억과 기운이 충분한 2026년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되길 소망하자.



몸으로 하는 공부



허유미
예술교과

예술 교과는 예술적 감성과 소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창조성을 키워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공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느라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해왔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학에서 하게 될 공부는 그와 비슷하거나, 때로 아주 다르기도 할 겁니다. 공부의 폭이 넓어지고 학습 방식도 다채로워질 테죠. 그중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예술 교과는 예술적 감성과 소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창조성을 키워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공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바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뻘뻘함으로 무장하고 아무렇게나 움직여보기

제가 강의하는 <움직임과 소통>은 몸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몸으로 생각하라니,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6년간 같은 자세로 앉아 하염없이 공부를 했던 여러분은 이미 공부 도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대신 몸의 감각이나 이야기는 신경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나는 진정한 공부는 내 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다른 몸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몸에 쌓아나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는 누구이고, 타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수업의 화두는 한 마디로,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앞으로는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던데,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열심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공부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몸을 동원해서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몸에 새겨야 하죠. 예술은 이 질문에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춤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 과정을 탐구합니다. 춤은 매우 추상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직관적이고 솔직하죠. 그래서 춤을 추다 보

면 나는 어떤 성격인지, 어떤 움직임에 익숙한지 알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나와 얼마나 다른지, 저마다 개성이 있고 아름다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은 동작을 연습하거나, 즉흥적으로 춤을 추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과 춤을 주고 받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몸으로 이심전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쩌면 춤은, 개별적인 존재들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은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춤을 안 춰봐서 춤을 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몸짓은 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기교적이고 멋진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내 몸을 알아가는 탐험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뻘뻘함으로 무장하고 아무렇게나 움직여보기 시작한다면, 몸에 내재된 충동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겁니다.

‘까짓거, 춤 한 번 춰볼까?’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일상을 구성하는 습관적인 동작들 너머에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몸짓들이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몸을 통한 창조적 사고를 시작하게 되는 점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몸이 자유로워지면 나를 둘러싼 시공간도 새롭게 보이기 마련이죠. 또한 학생들끼리 함께 춤추고 몸을 부대끼다 보면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 부쩍 친해지곤 합니다. 마주 보고, 호흡과 체온을 느끼고, 같은 리듬에 들쩍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따뜻할 겁니다. 춤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학기가 끝날 무렵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별로 어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까짓거, 춤 한 번 춰볼까?’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춤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시야를 넓히고, 친구를 사귀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예술 교과에서 할 수 있는 폭넓은 공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배움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 내내 부지런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시민을 시민이게 하는가?



이강준
시민교과

인류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까요?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별이 좋은 날이나 외부에서 손님이라도 오면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셋길 언덕에 있는 평화민주동산을 찾곤 합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의 사법 살인(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서른아홉의 짧은 생을 마감한 이수병 선생의 동상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선생이 1961년 민족일보에 기고한 글¹의 정신을 빌려 질문을 던져봅니다. ‘학생’이 ‘상아탑’의 ‘관념’을 넘어 ‘광장’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할 때,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눈을 돌려 세계를 보라

지난 1981년 경희대 설립자인 조영식 박사의 제안으로 UN은 회원국 전원 일치로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수병 선생이 일찍이 던진 ‘인류의 평화와 자유’는 경희대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어떨까요?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인권유린, 이스라엘 점령군의 팔레스타인 탄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위협받는 자결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이란의 반정부시위와 유혈진압, 네팔·마다가스카르·케냐 청년들의 체제 저항운동...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인류의 평화와 자유’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충분할까요?

고개 숙여 목소리를 들어라

세계를 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고개 숙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번의 전쟁을 겪은 27살의 팔레스타인 난민 살레는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이야기가 있다²”고 말합니다. 미얀마 출신 이주민 미모뚜는 “군부가 낮에도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체포·징집하고 있다³”며 한국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샤희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외된 약자나 하층민까지도 체제 안으로 포용하려는 태도가 곧 사랑입니다.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투명인간(서발턴)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 품을 내어 행동하라

불평등, 기후위기, 정체성과 다양성, 차이와 공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민권이 뿌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인류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까요?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도 눈을 돌려 세계를 보고, 고개 숙여 목소리를 듣고, 결과 품을 내어 행동하면서 답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민주’의 꿈을 함께 꾸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우나 평화민주동산의 바닥돌 위에는 경희대 출신 문인들의 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문제 시인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농담,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라는 약속을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차례입니다. 벚꽃과 목련이 흐드러지는 봄, 평화민주동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상아의 광장", 민족일보 1961년 2월 24일자 3면, <https://buly.kr/58TiNas>
 2. "가짜지구 청년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이야기 멈추지 않을 것', 미디어오늘, 2024.01.10
 3. "미얀마 현재 생활 상황 설명문",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파주 북토크 발표문, 2025.9.20

긴 시간의 교양, 짧은 학기의 실천 : ‘빅문’이 다음 단계로 가는 길



김성
과학중핵교과

저는 2017년 가을부터 <빅뱅에서 문명까지>(이하 ‘빅문’)를 학생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제목부터 거창합니다. 처음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빅뱅이요? 제가 문과인데요...”, “문명은 알겠는데 빅뱅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수업이 몇 주 지나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먼 이야기’로만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역사, 지구의 시간, 생명의 진화,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한 줄로 꿰어보는 순간, 학생들은 자신이 서 있는 ‘현재’가 사실은 아주 긴 연쇄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또 몇 해가 지나면서 저는 이 과목이 의외로 조용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식을 더 많이 안다기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거리와 크기가 달라지는 변화였습니다.

‘긴 시간’은 단순한 배경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은 정답을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케일을 바꾸어 사유하는 힘입니다.

‘빅뱅’은 너무 멀고, ‘문명’은 너무 가까워

‘빅뱅’은 너무 멀고, ‘문명’은 너무 가까워 보이지만, 둘을 한 줄로 잇는 순간 학생들은 처음으로 ‘현재’의 위치를 감각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시대는 역사 전체에서 어디쯤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살까?” ‘긴 시간’은 단순한 배경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은 정답을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케일을 바꾸어 사유하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AI가 글을 쓰고, 과학기술이 매일 새로운 약속을 내놓고, 사회는 ‘정답’보다 ‘입장’이 먼저 오가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이런 시대의 교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그 답을 일부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목이 학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상식’이 아니라 시간의 문해력입니다. 무엇이 단기간의 유행이고 무엇이 장기적 구조인지, 어떤 현상은 왜 수천만 년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또 어떤 선택은 왜 오늘의 효율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해지는지. 긴 시간의 관점은 단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시민적 판단을 위한 기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빅문’이 앞으로도 오래 좋은 교양으로 남기 위해, 더 많은 내용을 덧붙이기보다 세 가지 감각을 더 분명히 남겨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의 감각, 증거로 말하는 습관, 미래를 다루는 태도

첫째는 ‘긴 시간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의 효율과 내일의 성과에 쫓기지만, 어떤 문제는 짧은 시간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변화, 기술의 파장, 사회의 진동은 대개 누적되고, 전환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긴 시간의 감각은 ‘당장 이익’만으로 결정하기 쉬운 시대에, ‘지속 가능’이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시민에게 필요한 교양입니다.

둘째는 ‘증거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의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근거를 다루는 능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주를 재구성하는 방식, 지구와 생명의 흔적을 읽는 방식, 문명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은 모두 “어떤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빅문이 학생들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기술은 지식을 암기하는 손이 아니라, 근거를 구별하고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과학은 더 이상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언어가 됩니다.

셋째는 ‘미래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교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미래를 다루는 규칙, 즉,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트레이드오프를 비교하고, 선택의 책임을 묻는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빅문은 ‘인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다루지만, 그 질문의 끝은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한 개인의 진로와 삶의 방식, 한 사회의 정책과 윤리로까지 연결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빅문을 통해 ‘큰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 삶의 판단 기준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세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2017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강의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도 강의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대한 우주 이야기 자체보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할 때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결국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우주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양입니다. 긴 시간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증거로 말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는 사람. 저는 빅문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주의 완주에 경의를 표하며



진은진
글쓰기교과

잘하고 싶어서 종종거리고,
잘 안돼서 조바심 내고
속상해하면서도 성주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다는 것,
그것은 글쓰기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정말 귀한
자세가 아닐까 싶거든.

성주야, 편지 잘 받았어.

지난 학기 <주제연구> 수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네 편지를 보면서, 성주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이 수업을 들었는지 그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고, 내가 그 파릇하고 생기 넘치던 청년을 한 학기만에 파김치를 만들었구나 싶어서(이 몸쓸 능력 어쩔...) 미안했다. 소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다는 부분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말이지.ㅠㅠ

이토록 긴 수강생 설문지

성주는 수강생 설문지에도 긴긴 편지를 썼었어. 나는 글쓰기 선생 노릇 30년만에 그렇게 긴 수강생 설문지는 처음 받아 보았단다. 과제가 많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지만 과제를 줄여 준다는 말에 기대를 걸고 수업을 듣기로 결심을 했다며 수업과 관련한 이런저런 발랄한 제안을 했었지. 이런 학생이랑 수업하면 정말 재미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단다. ‘학술적 글쓰기’라는 무겁고 낯설기까지 한 글쓰기를 가지고 그 친진한 기대에 어떻게 화답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1학년 때 배우는 <성찰과표현>은 가벼운 에세이지만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주제연구>는 내용도 형식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읽기 자료부터 어렵고, 비판적인 사고도 해야 하고, 구성이나 내용 모두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더구나 소논문이라고 하는 낯선 형식에도 도전을 해야 하니까 정말 어렵지(논문은 나도 항상 어렵다니까).

성주야,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늘 과제 부담을 낮추고 싶단다. 그러나 나는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나탈리 골드버그의 말에 ‘뻗속’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AI가 글을 써 주는 시대에 글쓰기 시간에 글쓰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글쓰기 훈련을 하겠나 싶어서 말이야. 생각해 보면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은 아닌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이게

또 선생 입장이 되고 보니 다르네. ㅎㅎㅎ

과제의 적당함 앞에서의 머뭇거림

나는 아직도 그 ‘과제의 적당함’ 앞에서 머뭇거리란다. 이 친구들이 글쓰기라는 험난한 길을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리라 믿고, 말랑하고 재미있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좋은 추억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호된 훈련과 실패를 견뎌내 웬만한 시련에는 끄덕하지 않을 탄탄한 멧집을 키워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매 학기 고민하고 고민한다.(이 정도 우유부단함이면 다른 직업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 싶다. ㅎㅎㅎ) 그런 고민은 내 글쓰기도, 내 삶도 마찬가지로. 내 앞에 놓인 삶을 누구보다 잘 살아내고 싶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몰라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많지. 그러나 때로 초라하고, 때로 불품없어도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 글쓰기는 그런 삶을 꼭 닮은 것 같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

과제 많은 것이 미안해서 나는 항상 기본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더 완성도 높은 글을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설사 그것이 글쓰기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단지 좋은 점수가 필요해서 그렇다 해도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싶어서 종종거리고, 잘 안돼서 조바심 내고 속상해하면서도 성주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다는 것, 그것은 글쓰기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정말 귀한 자세가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고되고 힘들었던 <주제연구> 수업에 대한 푸념과 원망과 서운함과 아쉬움으로 가득 찬 성주의 긴긴 편지가 나는 고맙고 귀하게만 느껴졌단다.

내 <주제연구> 수업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 크게 사라져 버린” 성주야,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 진짜 사라졌다면, 다시는 보지 않아도 좋을 교양 담당 교수한테 그렇게 길게 편지를 쓸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ㅎㅎㅎ 방학은 잘 보내고 있지? 언젠가 내게 보여줬던 그 일정표처럼 방학도 빈틈없이 알차고 바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성주가 말했던 성주의 꿈, 언젠가 성주 앞에 펼쳐질 그 빛나는 삶을 응원하고 기대할게.

‘배움’의 본질을 배우는 곳



석가연
아동가족학과 21학번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가족정책연구소 석사과정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배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각 과목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필기하고 암기하여 머릿속에 옥여넣은 후, 시험 당일 머릿속 모든 암기 서랍을 꺼내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시험이 끝나면 다음을 위해 암기 서랍을 깨끗이 비우는 것. 이것이 배움이 맞을까, 내 행위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때면 시험 시간이 다시 돌아와 암기 서랍을 채우기에 바빴다.

대학에 가면 퍼즐 맞추기가 아닌 학문을 ‘배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마침내 입학한 대학에도 존재했던 상대평가 시스템은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며 체화된 경쟁의식을 건드렸다.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나는 줄곧 ‘학습’이 아닌 ‘암기’를 했다.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은 해냈다. 그러나 학기를 마치며 성적조회를 할 때마다 성취감보다 공허함이 남았다.

공허함을 채워 준 합기도 수업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하며 첫 번째로 클릭했던 강의들을 기억하는데, 4학년 1학기 나의 첫 클릭 과목은 <합기도(Aikido)>였다. 교수자는 김진해.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인문 교과 강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 의아한 마음에 강의계획서



석가연 동문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법 대신 치열하게 고찰하는 법을 배웠다.

를 살폈다. 수업개요를 보던 중 ‘관계성에 대한 오해는 관계를 대결적이거나 경쟁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수강해야 하는 체육 과목을 모두 이수했으면서도 나는 합기도를 신청했다.

수업은 생각보다 본격적이었다. 교수님께서 직접 기술을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함께 따라서 수련하는 방식이었다. 합기도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에 모든 수련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야 했다. 보통 근처에 있는 사람끼리 짝이 됐는데, 나는 여자 중에서도 키와 체격이 작은 편이라 누구와 짝을 이루어도 부담스러웠다. 특히 남학우와 짝을 이뤘을 땐 심리적으로 더욱 긴장되어 온몸에 힘이 들어갔으며 동작 하나하나가 억지스러워 지곤 했다.

그럴 때 교수님께서 “합기도는 힘의 무술이 아니니 동작을 외워서 따라 하거나 이기려 하지 말고, 나의 흐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고 기운을 따라가면 곧 상대와의 연결도 자연스러워진다고 늘 강조하셨다. 나는 이내 그것이 합기도에서뿐 아니라 모든 배움에 있어 지녀야 할 태도임을 알았다. 교수자의 말을 암기하듯 따라 하기보다, 이해하고 습득하려 하는 것. 옆에 있는 타인과 경쟁하는 대신 연결되는 것이 ‘배움’이었다. 좋아하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공허함을 느꼈던 이유는 내가 여전히 암기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합기도 수업을 들으며 나는 점차 암기보다 배움과 이해를, 경쟁보다 공존과 협동을 만게 되었다.

‘왓치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교수님은 후마니타스 교수라는 꿈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교수님 국문을 전공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합기도 수업까지 열게 되셨죠?”

튼금없는 나의 질문에 교수님은 교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순간, 합기도를 처음 접했던 순간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결론은 이랬다.

“살다 보면 왓치 하고 싶어지는 것이 생긴다. 그걸 도전해라.”

교수님의 말씀 속 ‘왓치 하고 싶은 것’은 내게 간절한 형태로 다가왔다. 이후로도 교수님과 종종 깊은 대화를 나누며 나는 삶의 태도와 가치들을 조금씩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내게도 ‘왓치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나는 나의 전공인 아동가족학을 왓치 모르게 좋아했고, 관련 정책을 논할 때면 심장이 뛰었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내 안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치열하게 사고하고 고찰하고 배우라

평가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우리 사회의 경쟁 문화는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어떤 인간이고 싶은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으며,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삶을 이끌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고 사고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본질은 그런 것이며, 나는 후마니타스 안에서 그 본질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왓치 하고 싶은 것’. 교수님의 ‘왓치 하고 싶은 것’이 나라는 개인에게 어떤 전환점으로 작동했듯, 인간에게 있어 스스로에 대해 고찰하는 행위의 힘은 거대하다. 끊임없이 고찰하고 치열하게 배우길. 왓치 하고 싶은 것들에 기꺼이 몸을 내던질 용기를 갖고 마음껏 실패해 보길. 이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경험할 당신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는 간절한 부탁이다.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법

이소영
화학공학과 2009학번
동성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 사업부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먼저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치열한 입시를 끝내고 드디어 대학에 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의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대학 입학은 결승선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 얼마나 더 근사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출발선입니다. 저는 재학 시절 내내 매년 참여했던 해외 탐방 프로그램과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영예학생(Pride & Honor) 3기 활동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선물 같은 경험들이 제 삶에 어떤 이정표가 되었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형태에는 정답이 없음을 깨닫다

저는 대학 시절 파라과이, 브라질 같은 남미부터 미국, 유럽 전역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미국 스탠퍼드와 UCLA에서 만난 학생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캠퍼스에는 20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아가 생겨 돌아온 30대, 전문성을 쌓기 위해 열정을 불

태우는 40대 석·박사생들이 가득했죠.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오늘에 행복을 느끼며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19살엔 수능, 20살엔 대학, 휴학 없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천편일률적인 '정답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유연함'이라는 근육을 길러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화학공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신사업 기획, M&A를 거쳐 현재 B2B 국내외 영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필드를 확장하며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 대신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힘. 그것이 후마니타스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다

영예학생(Pride & Honor) 3기 활동은 저에게 단순히 동료, 선후배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전적인 기술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합숙하며 밤새 토론하고, 연극과 해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얻은 삶의 기준과 타인을 포용하는 경험은 이소영 동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행했던 시간이 그 자양분이 되었죠.

사실 저도 저학년 때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해 이기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해 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도 했죠. 하지만 함께 살을 맞대며 치열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두거나 내 뜻대로 꺾으려 하기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포용하고 다룸으로써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더 큰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입니다.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타협과 협동을 선택하는 법,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 어떤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몸소 배웠습니다. 이때 맺은 인연들은 지금까지도 제 곁에 남아 소중한 동료이자 스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실무적인 역량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경희인'으로 만들어줄 진정한 실력입니다.

마음껏 경험하고 실패하며 여러분만의 빛을 발견하라

대학교 입학이라는 타이틀은 여러분의 시작점일 뿐, 결승선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 어떤 고민을 하며 스스로를 빛어내느냐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상이기여 여러분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마니타스의 틀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빛을 발견해 가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도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제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제안을 주신 유재명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소영 동문은 재학 당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영예학생'(Pride & Honor)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무거나!

최다희

경영학과 2020학번
네모파트너즈POC HR컨설턴트



입학을 축하해요! 앞으로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지, 나아가 왜 대학이라는 길을 선택했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답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왜 후마를 선택했느냐고 묻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제 대답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선택했는지. 저를 여덟 학기 동안 청운관에 드나들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아무거나’ 하는 재미의 발견

스무 살이었어요. ‘아무거나!’ 그 한마디가 중간 고사의 범위였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말을 놓는다고 몇 년 전 마스크를 달구었던 <의미와 탄생>을 수강할 때였는데요. 교수님은 노래 한 곡을 틀어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와 연관된 아무거나 제출하라. 형식도, 분량도, 주제도 상관없다.”

저는 길고양이의 삶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제작했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점수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거나 내라며! 그런데 대다수가 고양이를 찍어 올렸고, 누군가는 백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의 보고서를 썼다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웃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를 통해 시험을 치를 기회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허락되었나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애를 썼잖아요. 물론 수업 방식

이나 채점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구나. 아무렇게나 깨닫는 것들도 있구나. 교실에 앉아 칠판을 쳐다보며 멍하니 펜을 놀리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태껏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후마니타스

한술 더 떠 발로 뛰기까지 하라는 수업을 만났습니다. 그때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세계와 시민>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세계 속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오라는 사명이 주어졌지요. 고작 대학생들에게 세계 속 문제라니!

저는 모두가 적응해 버린 문제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여러분에게도 낯익은 수식이지요? 그래서 ‘KHU-함’을 설립했습니다. 거리에 나가 각 지역의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청년들과 대화하고, 카카오톡 심리 상담 채널을 운영하는 일종의 팀이었는데요.

아뵘새! 사이버 종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교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지. 그도 그렇지요. 뭣도 모르는 스물몇 살들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표어를 걸고 다녔으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웃기기도 했을 테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냥 했습니다. 백 번의 실패 가운데 열댓 번은 성공인 듯 아닌 듯, 벽을 허물지는 못했어도 반투명하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냥 한다. 제게 그건 꽤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떠난 지금은 그렇게 그냥 확 해 버리는 건, 그 뭣도 모름은 대학생의 특권이었습니다. 후마는 우리에게 바로 이 ‘그냥 할 수 있는 공

간’을 내어줍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계기를 만들어주지요. 저는 이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대안을 손쉽게 찾아주는 요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종종 궁금했습니다. 한계 짓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어린 날의 헛디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해냈던

‘사랑하는 다희에게’

마지막 학기에는 책을 펴냈습니다. 독립 출판 수업이었는데요. 인생사를 주제로 글을 쓰고, 강의실에서 소리 내어 읽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 책의 제목은 ‘사랑하는 다희에게’였어요. 사 년간 ‘아무거나’ 되자고 했는데, ‘사랑하는 다희’가 되어 졸업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또 다른 장점은 별나다는 것 그 자체예요. 면접관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니까요. 논문, 연구, 학회, 공모전 수상 사이에서 사이버 종교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직접 책을 냈다는 이야기는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수많은 회사들의 수많은 선택들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신입사원으로서 두렵고 막막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해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립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해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여러분의 ‘아무거나’가 여러분 밖으로 나와 세계와 공명할 기회를 가져다줄 거예요. 동문이 되어 영광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러므로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해내야만 한다.*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 청운의탑에 올린 글

최다희 동문은 마지막 학기에 4년간 후마니타스칼리지 수업을 듣고 성장한 자신을 담은 책 ‘사랑하는 다희에게’를 펴냈다.

후마니타스, 마음껏 꿈꾸고 고뇌할 수 있는 공간

김지혜 활동명: Jihae Kimm
영어영문학과 16학번
대중음악 작곡가



김지혜 동문이 작사, 작곡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OST 'Friends'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2024 제45회 청룡영화상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퇴를 하고 줄곧 홈스쿨링을 하다가 5년 만에 입학한 대학교는 세계 우물밖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계기이자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음악에 대한 꿈은 잠시 뒷전에 두고 그저 책이 좋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영문학도가 되었지만, 인생 처음으로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매 수업 때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명확한 꿈이 있거나 체계적으로 인턴십과 취업 준비를 하는 데에 반해 저는 방황하고 맴도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들께 찾아가서 여러 고민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들은 항상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책을 추천해 주시거나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볼 질문들을 역으로 던져 주셨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한 가지 정답은 없다, 너의 질문에 대한 답들은 네 속에 있다는 교수님들의 추상적인 답변은 그때의 저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재밌었고, 경희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오래된 인류의 지식과 경험들이 쌓인 책들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인생에서 여러 경험들과 방향

들은 마치 점 같아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경험들이 선이 될 때에 후에 비로소 그 경험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문학과와 전공 수업들, 후마니타스의 교양 수업들, 미학이 궁금해서 이은정 교수님과 일대일로 진행했던 독립 연구 수업, 학점과 상관없이 그저 듣고 싶어서 청강했던 타 전공 수업들, 3학년 때 뉴욕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보냈던 한 학기,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꾸렸던 독서모임, 우연히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아 친해진 친구와의 우정, 경희대 학보에서 인터뷰를 읽고 무척대고 찾아가간 선배님과의 만남 등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무엇도 의미 없는 경험들은 없었습니다.

인문학적 고민이 만들어준 예술적 색과 개성

지금은 비록 영문학 전공과는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때 수업에서 꾸린 독서모임 친구들과와는 졸업 후에 현재도 아직도 일년에 서너 번씩은 책을 읽고 만나는 7년 지기 책 친구들이 되었고, 경희 학보에 실린 은정아 선배의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음대 입시에 도전하여 전액 장학금과 총장 장학금을 받고 버클리 음대에 유학 올 수 있게 되었고, 문학을 공부한 덕분에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음악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며, 그때에 익혔던 문학적 감성을 토대로 작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보스톤이라는 동네에서 다시 대중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하며 한국에서도 Jihae Kimm이라는 예명으로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타지에서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인생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게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명문음대라고 손꼽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바는 학교에 양질의 음악



김지혜 동문은 버클리 음악 대학에 진학하며 'CJ 해의 음악대학원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수업들은 많지만 그 어떤 수업도 예술가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예술적 색과 개성은 경희대에서 인문학적 고민을 하고 세상을 사유하는 법을 정립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서의 고민과 탐구의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저의 음악도 없었을 것이라고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제 모교라고 부를 수 있어 자랑스롭습니다. 경희대가 여러분이 진정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음껏 꿈꾸고 고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배움의 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은퇴하신 후마니타스의 임옥희 교수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셨던 쉼보르스카의 시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학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대학과 학생 잇는 소통 창구 후마 교육 방향 함께 모색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까지 미비점 개선
후마 교육과정 개편 참여, 교양교육 미래 구상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그 중심에 대학생위원회가 있다. 대학생위원회는 수업 환경과 강의 방식,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학에 전달하고, 교수진과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세계시민의 이상에 따라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경희대학교는 2010년, 대학생위원회를 발족하며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과정부터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2012년부터는 재학생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며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학생 참여로 확장되는 교양교육, 배움학점제

대학생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배움학점제’ 활성화다. 배움학점제는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생들이 직접 교양 강좌를 제안하고, 강의 개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강의 개설로 이어진다.

국제캠퍼스 대학생위원회 ‘하이쿠(Hi-KHU)’가 개최한 ‘2025 배분이수 공모전’이 대표적 사례다. 참가자들은 강의 개설의 필요성과 수업 개요, 강의 내용을 제안했고, 교양교육의 가치 실현 여부와 학문적 성취 가능성, 운영의 실현 가능성, 체계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교수진 심사와 학생 투표를 거쳐 ‘SDGs와 라틴 아메리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남반구의 목소리’, ‘온라인 군중심리와 감정 알고리즘’ 등의 강좌가 선정됐다.

함께 뛰고, 함께 사유하는 대학 문화 형성

서울캠퍼스 제17대 대학생위원회 ‘클릭(KHLICK)’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후마 교육의 가치를 캠퍼스 안팎으로 확장했다. 2025년 3월에는 1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며 성찰의 시간을 마련했고, 북서울꿈의숲 환경 정화 플로깅 및 산불 예방 캠페인, 간호과학대학과의 합동 헌혈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했다. 장애인과 보행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시설 점검과 개선 활동도 이어졌다.

8월에는 하계 ‘경희 클리픽’을 열어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몸으로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11월에는 ‘문학의 밤: 사유의 서재’를 개최해 글쓰기와 북커버 제작, 문학 골든벨 등을 통해 사유와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2026년에는 ‘KHLOVER(클로버)’(서울캠)와 ‘하이쿠’(국제캠)가 후마스러운 교육문화를 이어 나간다. 대학생위원회는 대의원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SNS(인스타그램 서울캠퍼스 @khu_hucalwe, 국제캠퍼스 @hi_khu)에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교양교육 혁신의 엔진, 교양교육연구소·후마전환센터 지구적 문제에 응답하는 세계시민교육 실천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교수자 워크숍 등 개최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한 연구 및 담론 생산, 실천의 토대 구축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을 쇄신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한다. 그 추진 동력 중 하나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이하 후마 연구소)다. 후마 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고등교육 기관과 공유한다.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교수자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전범을 수립하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학술지 『후마니타스 포럼』을 연2회 발간한다. 후마 교양교육의 철학, 교육 내용, 교육 방법론 등 새로운 이론과 실제 적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후마니타스 포럼』은 국내외 교양교육의 연구 성과를 심화, 발전시키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교양교육 연구 성과 심화, 발전

후마 연구소는 매년 두 차례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지성들이 모여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교육 현장의 지혜를 나눈다. 2025년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의 교양교육: 무례한 시대에 교양교육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표된 연구 논문은 『후마니타스 포럼』에 수록된다.

이밖에도 후마는 자체 교재 평가를 통해 내용

을 개정, 보완하며 교양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공고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후마니타스 전환센터 등과 함께 교양교육의 사회적 실천과 확산에도 힘쓴다.

배움과 실천을 잇는 후마니타스 전환센터

후마니타스 전환센터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움과 실천을 결합한 교육을 지향한다. 2008년부터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실천인문학센터가 전신으로, 2018년에는 목련상(실천 부문)을 수상했다. 목련상은 경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2025년에 재출범한 후마니타스 전환센터는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한 연구 및 담론 생산, 실천의 토대를 구축했다. 2025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후마니타스 목련칼리지 2025’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주니어 프로그램과 시민 및 기업 대상 시니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환센터는 앞으로도 교양교육의 재도약을 추진해 나가며 국내를 넘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개념 평생학습 ‘목련칼리지’ 지성·감성·영성의 조화로 ‘제2의 탄생’ 지원

동문·시민 대상, 기초학문·인문학·예체능 강의 개설
지속 가능한 배움을 설계하는 교육 모델



2025년 가을 후마니타스 목련칼리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후마니타스 전환센터가 주축이 된 목련칼리지는 대학 교양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배움을 통해 삶을 다시 성찰하고 이후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생의 후반부로 접어드는 동문과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교양교육을 ‘지금의 삶에 작동하는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축적해 온 교양교육의 철학과 실천 경험은 목련칼리지를 통해 대학 밖으로 이어진다.

교양, 생의 전환을 설계하는 힘

목련칼리지는 교양을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질문하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기후 위기, 초고령사회, 인공지능의 확산 등 급격한 전환의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다.

목련칼리지는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예술·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강좌를 구성해, 지성·감성·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이 타인과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유하도록 이끈다.

8주간 주 1회로 운영된 목련칼리지는 두 개의 강좌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문재 시인이 맡은 ‘나를 위한 글쓰기: 자기성찰과 재탄생’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관계와 경험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후의 시간을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 글쓰기 강좌다. 수강생들은 개인의 서사를 언어로 정리하며 자기 이해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했다.

피아니스트 조은아 교수가 강의한 ‘도란도란 클래식’은 일상의 언어로 클래식 음악을 풀어내는 강좌다. 음악 속에 담긴 삶과 감정의 결을 함께 읽으며, 클래식을 일상과 연결된 언어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강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유의 깊이를 확장하며, 교양교육이 삶과 만나는 구체적 장면을 보여주었다.

확장되는 배움, 이어지는 학습 공동체

목련칼리지에는 동문과 교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수료 이후에도 학습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강의 전반에 대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해 만족도 100%를 기록했다. 이는 목련칼리지가 지속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6년에는 봄학기 프로그램 개설을 시작으로 강좌 수를 확대하고, 지역 도서관·평생학습관, 교사 모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글쓰기와 여행, 문학·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형식의 단기·중장기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시민 의식 일깨우는 축제 인류사회 위기 넘어설 평화의 마음 요청

행성 위기 및 공생적 평화 다룬 영화 상영회 개최
환경 실천으로 이어진 세계평화주간 프로그램



경희학원은 평화의 새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성찰적 전환 의식과 실천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2025년 경희학원은 제44회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9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및 학술 행사가 열렸으며, 후마니타스칼리지 역시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길 모색

9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로, 경희대학교가 제안해 1981년 제정됐다. 광릉캠퍼스 평화의 탑에 새겨진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는 문구는 경희의 평화사상을 상징한다. 이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개선)보다 평화가 더 소중한 가치임을 뜻한다. 이 같은 평화사상을 근간으로 경희대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는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의 제정을 적극 주도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학문과 평화의 지구촌 축제 ‘Peace BAR Festival(PBF)’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를 주제로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부터 PBF 세계평화 주간을 선포하며 평화 담론을 확장해 오고 있다.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세계평화주간을 맞아 ‘Peace BAR Cinema Week’를 열고,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 민주주의와 책임의 문제를 성찰하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영화제는 “행성적 위기, 공생적 평화를 찾아서”라는 문제의식 아래, 인간 중심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화는 삶의 방식이자 책임의 문제

상영작들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남긴 흔적과 플라스틱 산업이 야기한 환경 불평등, 비인간 생명체와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체코문화원의 지원으로 국내 최초 상영된 페트르 얀차렉 감독의 <하벨이 말합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는 바츨라프 하벨의 삶을 통해, 행성적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의식과 공공적 사유를 되돌아보게 했다.

9월 16일(화)부터 양일간 서울캠퍼스에는 후마니타스 그린피스 부스가 열렸다. 대학생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환경 보존이 곧 세계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키링 및 방향제 제작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와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세계평화주간을 통해 평화를 거창한 구호가 아닌, 오늘의 삶에서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의 문제로 다시 묻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희의 도전과 성취는 멈추지 않았다.
경희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내 1위다.
특히 연구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
HK 3.0 사업 등 연구지원 사업도
꾸준히 수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핵심가치를 강화해 온 결과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교육으로,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학문과 평화' 두 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 열어간다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전 세계 사립대학 1위 세계가 인정한 연구 성과, 인재 육성과 교육 혁신으로 확장

경희는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연구 수월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대형 국책 과제를 잇달아 수주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갔다. 대학 순위와 영향력 지표에서의 도약은 물론, 학문 후속세대 지원과 연구 생태계 혁신,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역량 강화까지 성과가 다층적으로 이어졌다.

세계가 주목한 공공성과 학문 역량

경희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25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 2025)'에서 세계 19위·전 세계 사립대학 1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THE 대학 영향력 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이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는 평가로, 대학의 공공성에 주목한다. 올해 평가는 전 세계 2,318개 대학이 참여했다.

경희는 이번 평가에서 SDGs 전 분야에서 고르게 성과를

경희가 2026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5위, 세계 252위를 기록했다.



보였다. THE는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 17)'을 필수로 평가하며, 여기에 더해 변환점수 기준 상위 3개 SDGs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경희는 2019년 국내 1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탁월한 성과를 이어오며, 올해 역대 최고 성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갔다.

경희는 '2026 THE 세계대학평가(THE World University Ranking)'에서도 세계 252위·국내 종합대학 5위를 달성했다. 세계 순위는 전년 대비 33계단 상승, 국내 종합대학 순위도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했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피인용(Research Quality) △연구(Research Environment) △교육(Teaching) △국제화(International Outlook) △산학협력(Industry) 등을 지표로 삼으며, 세계 최대 논문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를 활용한다. 경희는 평가 전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탁월한 연구력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이는 연구와 교육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원 초빙 제도, 연구를 장려하는 학풍 등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지향해 온 축적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경희는 '2025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역대 최다인 32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인문·사회·자연·공학·예체능·의학 등 전 학문 계열이 고르게 포진하며 학문 분야별 성장세를 입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호텔관광 분야는 세계 42위를 달성했다. 언어학, 석유화학, 치의학 등 4개 분야는 세계 100위권에 올라 세계 수준의 학문 역량을 인정받았고, 현대언어, 간호학, 국제개발, 정책·행정학, 스포츠관련학, 농·임학 등 11개 분야가 세계 200위권에 진입했다. 다수 분야에서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으며, 국제개발, 스포츠관련학, 석유화



비교문화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비교문화연구소장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

학, 치의학, 교육학 등 10개 분야는 신규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인문·기초과학·의료까지, 사업 수주로 확장된 경희의 학문 지평

경희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굵직한 연구·교육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학문 역량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했다. 사업 수주는 재정적 성과를 넘어, 경희가 공공성과 학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학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비교문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 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최대 6년간 장기적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 연구소는 '행성시대의 돌봄인문학: 단절과 고립에서 상호존과 보살핌의 공생 네트워크'를 주제로, 인간 중심의 돌봄 개념을 넘어 생태·기술·사회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돌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번 선정은 경희 인문학이 한국 사회를 넘어 행성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다루는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5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지램프, G-LAMP)에 선정돼, 자연과학 분야 중 천체·입자·우주과학을 중심으로 최대 5년간 연간 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대학 내 연구소 구조 개편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도 강화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본격 시행되며, 경희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특성을 반영해 각각 서울시



경희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는 '2025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지램프, G-LAMP)'에 선정됐다.

와 경기도 RISE 사업에 선정됐다. 서울캠퍼스는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의학바이오, 양자시,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기술사업화를 연계한다. 국제캠퍼스는 명지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사업을 수행하며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 창업을 아우르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의료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인재 양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경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47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첫해에는 7억 5천만 원, 이후 매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의과대학과 공학계열이 협력해 임상 현장을 이해하는 의료 AI 인재를 양성하며,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계된 교육과 실무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약학대학 융합약학연구소는 교육부의 2025년 글로벌 사업에 선정돼, RNA 치료제를 주제로 9년간 총 135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연구소는 기초연구부터 전임상, 임상, 규제 대응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차세대 치료제 개발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약학대학 70주년을 맞아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국제무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지리학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한 '도시 기후 행동 계획을 통한 기후-스마트 도시 개발 지원 사업'의 국제 공개입찰에서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진행되며, 미화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 규모다. 우즈베키스탄 지작(Jizzakh) 도시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로, 경희가 국제기구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직접 과제를 수주한 첫 사례다.

건축 분야에서도 대형 국책사업 선정이 이어졌다. 건축학



2025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책임자 의과대학 오동진·연동건, 전자정보대학 이진석 교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책임자 지리학과 이은걸 교수,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사업 책임자 건축학과 황경은 교수(사진 왼쪽부터)

과 황경은 교수 연구팀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총 203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로봇친화형 건축물 설계와 시공, 운영 관리 기술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하며, 강동경희대병원과 동산의료원, 포항터미널 등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차세대 연구자에서 세계적 연구 영향력까지, 경희 연구 성과의 현재

사업 수주와 더불어, 연구 성과에 대한 대외적 인정도 이어졌다. 산학협력단은 특허청으로부터 '2025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2억 원 이상 규모의 지식재산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해당 포인트는 특허 출원과 유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에 활용되며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뒷받침한다.

2025년 경희는 차세대 연구자 육성과 연구 탁월성, 국제 담론 주도, 교육 혁신을 아우르는 성과를 확장했다. 먼저 박사 후 연구원 단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한국연구재단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연계해, 그린바이오과학원

정기홍 교수 연구실은 지금까지 선정자 3명을 배출하며 박사 후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비전임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의 연구비를 최장 5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연구자의 독립 역량을 키우는 핵심 제도인데, 경희는 이를 통해 교수 임용으로 이어진 사례를 만들고, 연구박사 단계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선순환까지 구축해 왔다. 2025학년도 신규 선정자인 김의정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이 벼 생산에 미치는 위협에 주목해 활성 산소 신호전달 기작을 규명·응용하는 연구를 추진하며, 경희의 농생명 분야 연구력이 미래 농업의 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영향력의 국제적 지표에서도 성과는 뚜렷했다.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하는 '2025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HCR)'에 스마트관광원 구철모·정남호 교수, 생물학과 배진우 교수, 컴퓨터공학부 홍충선 교수가 이름을 올리며, 경희는 연구의 질과 파급력을 세계 수준에서 재확인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교차 분야와 컴퓨터과학까지 영역을 넓히며 연구 포트폴리오의 두께를 키웠다. 더불어 엘스비어와 스탠퍼드대가 발표하는

연구 성과에 대한 대외적 인정도 이어졌다. '2025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 사회과학 분야에 이름을 올린 스마트관광원 정남호, 구철모 교수, 제10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계공학과 홍희기 교수(사진 왼쪽부터)



'세계 상위 2% 연구자'에서도 다수의 연구자가 포함되며 연구 저변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지식의 성과는 수상과 공공 기여로도 이어졌다. 홍충선 교수는 운당학술상 학술대상과 2024 지식공유대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AI 네트워킹 분야에서의 연구 업적과 학술·산업 기여를 인정받았다. 한의학과 조성훈 교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제5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의학적 관점의 제도화 가능성을 넓혔다. 기계공학과 홍희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경희가 '연구-실증-상용화'의 흐름을 꾸준히 구축해 왔음을 보여줬다.

교육 혁신 또한 속도를 냈다. 국제캠퍼스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서울캠퍼스는 자율전공학부를 개편해, 학생이 1년간 탐색과 경험을 거쳐 2학년부턴 전공을 선택하는 '열린 전공' 체계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복합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5년간 총 47억 5천만 원(첫해 7억 5천만 원, 이후 연 10억 원 규모)을 지원받아 의료-AI 융합 교육을 추진한다. 의학과계열과 공학계열이 함께 임상 기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루고, 산학연병 네트워크와 프로젝트형 실습, 해외 협력까지 연계함으로써 경희는 '의료 현장에서 작동하는 AI'를 구현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평화와 공존을 향한 세계적 담론의 장: Peace BAR Festival

경희학원은 유엔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세계평화주간'으로 지정하고, 9월 19일과 20일에는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했다. 2025년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로, 전쟁과 핵위기, 기후 위기, 초지능 가능성 등 문명사적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나오미 오레스케스, 존 아이켄베리 등 세계 석학과 실천가들이 참여했으며, 기념식과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청년 평화 포럼 등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경희가 주목하는 출발점은 '행성 의식'이며, 이는 기후 정의와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권 등 새로운 시민성과 정치적 상상력을 함께 세우기 위한 사유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경희가 이룬 성과는 개별 사업이나 수상의 나열을 넘어, 학문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학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연구는 교실과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세계로 확장됐고, 교육은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으로 이어졌다. 경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역할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경희학원은 2025년 9월 19일(금)과 20일(토) 양일간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PBF)'을 개최했다. 경희와 오랜 글로벌 공공 협력을 이어온 세계 석학과 기관들이 참여해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는 행성적 전환과 문명의 방향을 모색했다.



경이로운 후마니타스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다

강의실 안 아이디어를 강의실 밖으로 전공 역량 강화로 각종 대회 수상 잇달아

경희대가 추구해 온 대학의 참모습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이다. 경희는 '교양교육의 메카'라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전공과 삶, 학문과 사회를 연결하는 전환교육의 선두자로 나아가며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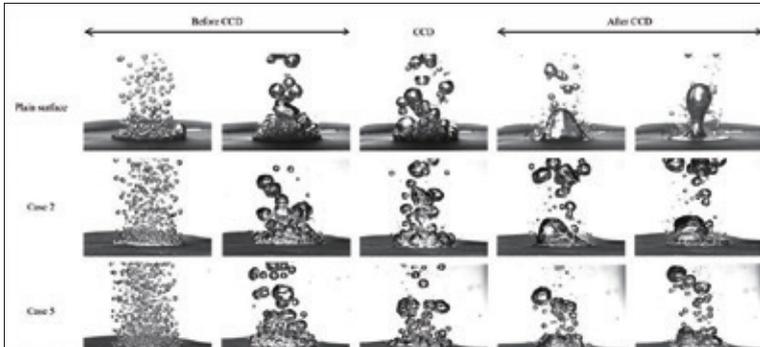
2025년에도 경희의 캠퍼스 곳곳에서는 연구실과 강의실, 무대와 경기장, 지역과 세계를 오가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탐색하고, 배움을 현실의 성취로 확장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학문후속세대부터 교원양성까지, 배움의 다음 단계를 열다

2025년 경희의 연구와 교육 성과는 '배움 이후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학부 연구생이 국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고, 박사후 연구자가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며, 예비 교사는 현장으로 진출하는 등 학습의 단계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원자력공학과 박수연 학생(21학번)은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해 SCI 등재 학술지 Journal of Electroanalytical Chemistry에 논문을 게재했다. 박수연 학생은

원자력공학과 박수연 학생(21학번)이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사진은 박수연 학생의 연구 성과로 일반 금속표면과 미세다공성 구조를 결합한 금속표면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개수가 늘어나서 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미세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해 저온 수전해 과정에서 최대 수소 생산 지점인 임계 전류밀도(Critical Current Density, CCD)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는 대규모 수소 생산을 위한 요소 기술 연구로 평가받았으며, 학부생 연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박수연 학생은 현재 경희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유정민 학생(19학번)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역시 세계적인 학술지 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박윤석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생체 모방 자기 판막 시스템은 기존 심혈관 시뮬레이터 대비 크기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의공학 및 바이오 전자소자 분야에서 주목받았다. 유정민 학생은 학부 연구생 시절부터 2년간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계기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성과는 분명했다. 2025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대학원 61명, 학부 교직과정 29명, 총 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기본 중심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적인 임용 지원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로, 사범대학이 없는 종합대학임에도 교원양성 경쟁력을 입증했다.

연구·기술·창업으로 이어진 실천하는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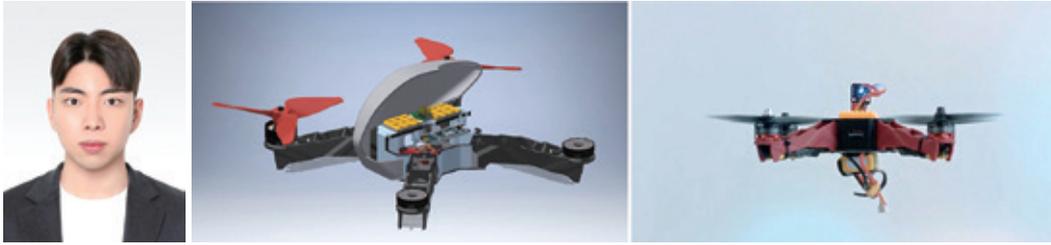
경희 학생들의 성과는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계공학과 이윤수·이주찬 학생으로 구성된 '아이로봇' 팀은 MediaPipe 기반 실시간 동작 모방 로봇팔 시스템을 개발해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IRC)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했다. 오픈소스와 저예산 환경에서도 고성능 휴머노이드 제어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창업팀 '오오즈(OOZZ)'(최찬술·정동화·박건·이유진)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리빙제품 브랜드 SOLEIL을 개발해 DDP 디자인 페어 대학협업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김유빈 교수의 지도 아래 산학협력과 특허 출원, 논문 발표로까지 이어지며 디자인 교육의 실천적 성과를 보여줬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김민재 학생(19학번)은 2025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교육용 드론 플랫폼 개발, 전기차 충전 결제 시스템 특허, 보안·모빌리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창업팀 '오오즈(OOZZ)'(최찬술·정동화·박건·이유진 학생)가 서울디자인재단 DDP 디자인 페어 대학협업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오즈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혁신적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산업디자인학과 김유빈 교수와 함께 'SOLEIL'이라는 리빙제품 브랜드를 개발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김민재(19학번) 학생이 2025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김민재 학생이 개발한 조립·코딩 학습이 가능한 교육용 드론 플랫폼 'easyDrone'의 모습.

기업 실무 경험 등 공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 공공기술'이라는 일관된 연구 방향을 실현해왔다.

청춘의 감각으로 무대에 오른 질문과 울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성취는 돋보였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 강민서·이찬영·성지원·강민구·류영근이 결성한 밴드 '카덴차'는 '2025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직접 작사·작곡한 곡 <허기>를 통해 청춘의 결핍과 공허함을 음악으로 풀어내 심사위원의 극찬을 이끌었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생태 훼손이라는 동시대의 과제에 설계로 응답하며 국내외의 주요 공모전에서 성과를 거뒀다. 김정원·유차니(환경조경디자인학과 21학번)·이지운(20학번) 학생팀은 제주 사계리의 갯녹음 현상에 주목해 내륙-연안-해저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수직적 순환 전략(Vertical Depth Solution)'을 제안했다. 이들은 내륙의 유기물 흐름을 바다로 회복시키는 구조를 설계해 해조류가 자생하는 바다 숲의 확장을 구상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로 세계 조경계의 권위 있는 ASLA Student Award(미국조경가협회 학생어워드)에서 명예상을 수상했다.

배경현·신인옥(환경조경디자인학과 20학번) 학생팀은 가평 자라섬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침수를 억제의 대상이 아닌 생태의 리듬으로 해석하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경관이 형성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기후·수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길과 습지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강민서·이찬영·성지원·강민구·류영근)이 결성한 밴드 '카덴차'가 '2025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김정원·유차니(21학번)·이지운 학생(20학번)이 2025 ASLA Student Award(미국조경가협회 학생어워드)에서 명예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제주 사계리 팀의 수직적 순환 전략 프로젝트(Vertical Depth Solution)의 패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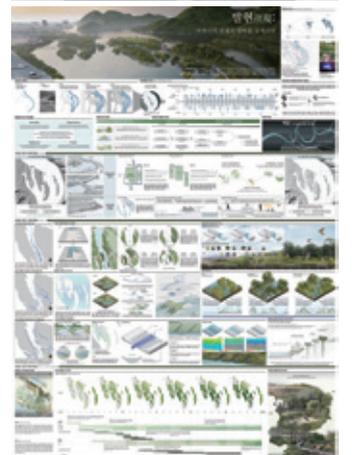
재구성한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고 권위의 환경조경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두 팀의 성과는 데이터 분석과 생태적 상상력을 결합한 설계를 통해, 환경조경디자인이 기후 위기 시대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결속과 신뢰로 완성한 승리의 기록

체육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축구부는 제61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4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네 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이기는 드라마를 완성했다. 골키퍼 이준희 선수는 승부차기 선방으로 김병지 GK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핸드볼부는 '2025 대학 핸드볼 통합 리그'에서 28연승 무패 우승, 체조부는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단체 종합 우승, 골프·태권도·양궁부 역시 전국대회에서 연이은 우승 소식을 전했다. 체육은 승패를 넘어 도전과 회복,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임을 보여줬다.

2025년 경희의 여정은 배움이 어떻게 삶과 사회로 확장되는지 보여주었다. 연구실에서 시작된 질문은 국제 학술지와 세계 무대로 이어졌고, 강의실에서 자란 호기심은 기술과 예술, 스포츠 현장에서 실천의 형태로 구현됐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들은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이라는 경희의 비전이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경희는 앞으로도 배움의 가능성을 학생 개개인의 성장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실천으로 연결하는 대학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2025년 제22회 환경조경대전에서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배경현·신인옥 학생(20학번)이 금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자라섬 팀의 '발현(發現): 자라섬의 잠재된 형태를 일깨우다' 패널 이미지.

축구부의 48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비롯해 핸드볼·체조·골프·태권도·양궁부가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경희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경희에서 이룬 꿈과 희망 나눈다 교수, 동문, 시민 기부 잇달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기부 프로젝트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2025년에도 경희를 향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교수와 동문, 그리고 경희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의 가치를 지지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이들의 기부는 장학금 조성,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지며,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름 없이 전해진 교육에 대한 신뢰

2025년에는 경희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시민의 기부도 있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90대 어르신은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서울캠퍼스를 찾아와 '어려운 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을 학생들을 위해 내놓은 그는 이름 공개와 공식 예우를 모두 사양했다.

어르신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캠퍼스를 떠났다. 대학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90대 어르신이 경희대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자는 기부 행사나 예우 등을 모두 거절했다.



교수 기부, 교육 현장에서 실천한 감사

여러 교수들이 기부를 통해 대학과의 깊은 연대를 보여주었다. 의과대학 이상열 교수는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하며 아레테클럽에 가입했다. 1995년 경희와 인연을 맺은 그는 학생 시절부터 교수로 재직하기까지의 시간을 '감사의 여정'으로 돌아보며, 30년간의 고마움을 기부로 전했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온 그는 이번 기부가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공과대학 최진환 학장과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역시 아레테클럽에 가입해 나눔에 동참했다. 최 학장은 공과대학 분관 건립을 위한 기부를 약정했고, 정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발전기금 조성에 뜻을 보냈다.

대외협력처는 대학 구성원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1년 아레테클럽을 발족했다. 아레테클럽은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한 교원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교원에게는 연구실 명패와 무료 주차권, 무료 건강검진권, 문화행사 초청 등의 예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의과대학 이상열 교수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약정하며 아레테클럽에 가입했다. 서정섭 동문(법학과 58학번,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은 과학기술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서정섭 동문은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서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사진 왼쪽부터)

공과대학 최진환 학장과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아레테클럽에 가입했다. 아레테클럽은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한 교원이 가입 대상이다.





차후영 동문(정치외교학과 67학번, ㈜성진엑스 대표)이 그의 아내 윤영섭 여사(㈜성진글로벌 대표)와 함께 약학대학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총 40억 원을 기부 약정했다.

동문 기부, 배움의 기억을 다시 학교로

동문들의 기부는 모교와의 인연을 다시 잇는 계기가 됐다. 차후영 동문(정치외교학과 67학번, ㈜성진엑스 대표)은 2020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2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아내 윤영섭 여사(㈜성진글로벌 대표)와 함께 총 40억 원(약학대학 10억 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30억 원)을 추가로 약정했다. 그의 기부로 조성된 '차후영홀'은 병원의 학술 행사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차 동문은 사회적 책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다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문경·김지연 동문(파미래㈜ 공동대표이사, 약학과 82학번)이 약학대학 70주년을 기념해 모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며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지연 동문이 학창 시절 장학금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던 경험은 기부로 이어졌고, 두 동문의 누적 기부액은 2억 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배움의 선순환을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정섭 동문(법학과 58학번,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이 모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과학기술 육성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 동문은 2021년 기부한 2억 원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이어가며, 누적 기부액은 총 5억 9백만 원에 달한다. 그의 모교 사랑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신념으로 이어졌고, 개인의 학창 시절 경험이 기부 철학으로 확장된 사례로 남았다.

나눔을 행동으로 잇다: 2025 경희 사랑의 물래산타

기부 문화는 학생들의 실천으로도 확장됐다. 지난 12월 2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 프로그램 '2025 경희 사랑의 물래산타'가 동대문구 회기동-이문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미래문명원 글로벌봉사팀이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시

작된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대면 활동으로 재개됐다.

물래산타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형 사회적 실천 활동이다. 이날 참여한 재학생 6명은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와 이문꿈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핸드벨 캐롤 합주, 산타에게 편지 쓰기, 눈사람 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저녁에는 회기동 주민센터와 동대문구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다문화·한부모·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 각 가정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한 생활용품과 식료품에는 이웃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이 담겼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어진 기부는 금액의 크기를 넘어, 교육의 가치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였다. 교수와 동문, 시민의 기부는 학생들의 배움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경희는 이러한 나눔의 뜻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 프로그램 '2025 경희 사랑의 물래산타'가 동대문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2009년부터 시작된 물래산타 프로젝트는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대면 활동으로 돌아왔다.





06

2026년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원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왔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했고
1981년에는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후 고등교육과
세계평화 운동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뿌리를 내렸다.
경희는 개교 70주년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1949 ~ 2026
학문과 평화의
77년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 전통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희의 창학정신 :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등용문’에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숲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는 교시탑이 눈에 들어온다. 교시(校是)는 학교를 세운 근본 정신, 다시 말해 창학정신이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학원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51년에 출간한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조영식 박사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동물도 아니고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도 아니지만, 문화와 가치의 창조자로서 독자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했다.

모든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서 본능과 이성을 통제하고, 적자생존의 ‘자연 규범’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문화 규범’을 지키며 인간적이며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지구공동사회(GCS: Global Common Society)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문화세계 창조론’의 핵심 내용이다.

경희학풍과 전통 : 학문과 평화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1949년 개교한 이래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근본 사명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세계 창조’를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희는 창학 초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실천하고 선도했다. 경희의 잘살기운동은 뒷날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이념적·실천적 원리를 제공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지구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해 물질문명에 병든 인류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한 ‘밝은사회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조영식 박사가 1975년에 펴낸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경희는 세계평화운동에도 앞장섰다. 1981년 11월 30일, 경희의 제안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매년 9월 21일)이 사상 최초로 제정된 일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경희대학교 교훈과 교육 방침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피란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때는 1951년 5월 18일이다. 신홍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홍전문학관을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경희는 1949년 5월 18일을 대학 설립일로 정했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는다.

1951년 8월 20일, 부산에서 새롭게 신입생을 맞이하며 경희는 교육 목표와 교훈, 교육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

경희정신과 경희의 상징물 :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과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경희 구성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희정신’이 필요하다. 경희정신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요약된다. 이 경희정신은 교화(校花)인 목련, 교수(校獸)인 웃는 사자로 상징된다.

‘웃는 사자’를 경희의 상징으로 택한 이유를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자가 오직 그 힘과 용맹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될 뿐이다. 그 용맹한 사자가 웃는 사자일 때 그의 기상은 인자함과 덕이 조화된 외유내강의 참다운 만수의 왕이 될 것이다.”

‘목련’을 경희의 교화로 제정한 날은 1970년 개교기념일(5월 18일)이다. 목련은 매서운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때 가장 먼저 희고 소담한 꽃을 피워 다가올 봄소식을 전한다. 역경을 이겨내는 진취적이고 선구자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꽃이다. 또한 ‘함께 피고 함께 지는’ 목련의 특성은 경희의 공동체 정신과 닮아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경이로운 경희'

1949년 2년제 초급대학에서 출발한 경희대학교는
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



1949~1953 : 경희의 탄생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피란지 수도 부산에서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가 시작됐다. 경희의 모태가 된 신흥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흥전문학관이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당시 신흥초급대학은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얻지 못한 가인가 상태였다.

조영식 박사는 부산역 앞 동광동에 본부 건물 1동,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2동을 신축하고 1951년 8월 20일 신입생을 맞이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성공적으로 첫 학기를 마쳤다. 이듬해인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정식 초급대학 인가를 취득했다.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교육 내용이 훌륭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몰려들었다. 3개 학과, 150명 정원으로 출발했으나 6개월 만에 학생수가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52년 12월 9일 신흥초급대학은 2년제에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다. 학교를 인수한 지 1년 7개월 만의 빠른 성장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큰 위기가 닥쳤다. 1953년 1월 9일 예기치 못한 화재 사건으로 공들여 지은 동광동 교사가 잿더미로 변했다. 설립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재기했다. 부산 동대신동 산기슭에 더 넓은 교지를 마련하고 착공 2개월 만에 새 교사를 건립했다. 동대신동 교사에는 대강의실과 일반강의실 7개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이 들어섰다. 400평 크기의 운동장과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도 조성됐다. 당시 피란지 부산에서 독립된 도서관 건물과 운동장을 갖춘 대학은 경희가 유일했다.

1953년 3월 30일 동대신동 교사에서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이날 경희의 1회 졸업생 45명이 배출됐다.

1954~1959 : 경희의 성장

3년에 걸친 6·25전쟁이 휴전되자 조영식 박사는 대학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산 기슭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했다.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서울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힌다.

경희의 제1기 마스터플랜은 10여 년에 걸쳐 추진됐다(괄호 안은 완공 연도). 코린트 양식의 본관 석조전(1956), 높이 12미터 폭 14미터의 아치형 정문 '등용문'(1955),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1968), 학술 경희의 산실 문리대학관(1958), 국제 규모의 400미터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1962),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해 한국 스포츠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체육대학관(1957),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무대 노천극장(1959) 등이 주요 건축물이었다.

캠퍼스 건설이 한창이던 1955년 2월 28일, 경희는 종합대학교 승격이라는 큰 경사를 맞았다. 경희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문화 창달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은 국내 모든 대학이 해마다 대학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시는 1956년 10월 23일 열린 경희의 제1회 대학제(학원제)이다. 또한 학내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1955년 5월 대학신문(현재의 대학주보)을 창간했으며, 1957년 10월 대학의 소리(VOU, Voice of University) 방송국을 개국했다. 교내 학술잡지 <고향>은 1957년 5월에 창간됐다.

1960~1969 : 경희의 발전

1960년 3월 1일 경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경희(慶熙)'는 행복, 형상, 객체, 양(陽)을 뜻하는 경(慶)과 맑음, 올바름, 지성, 주체, 음(陰)을 뜻하는 희(熙)를 결합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 즉 일원론적 우주관을 함축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이듬해인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춘 '경희학원'이 설립됐다. 경희의 창학정신을 구현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현장에서 경희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관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경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1965년의 동양의 과대학 인수·합병은 경희대학교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의 모든 단과대학을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 단과대학과 학과 증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음악대학(1964), 사범대학(1965), 의과대학(1966), 약학대학(1966), 산업대학(1968), 공과대학(1969) 등이 신설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 (IAUP) 제 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



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35개국의 대학 총장 105명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언론사 기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IAUP는 조영식 박사가 주도해 창설한 세계 지성의 모임으로, 1965년 6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고등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1970~1979 : 경희의 성숙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과 함께 경희대학교는 '의과학 경희'의 새 전통을 쌓아 올렸다. 경희의 의료기관 설립은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경희의료원은 당시 동양 최대인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국내의 대학병원들은 350~500병상 수준이었다. 경희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희의료원 개원은 국내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하며 한의학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동양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세대 한의학자'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제3의학'을 창출했다.

1970년대 한국 대학사회의 최대 화두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다. 제1기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경희는 타 대학에 비해 안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희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질적인 성숙과 도약을 이뤄냈다.

1979년 10월 20일, 경희는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나흘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해 경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1980~1989 : 경희의 도약

1979년 국제캠퍼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조영식 박사의 원래 구상은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각기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해 당분간 '분교' 형태를 유지해야 했다.

1980년대 이후 경희는 '하나의 경희'를 위한 편제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하나의 경희'에 대한 30년간의 꿈과 노력은 2011년 8월 24일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교육부는 양 캠퍼스의 통합을 승인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1990~1999 : 경희의 세계화

1999년 10월 10일, 경희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999서울NGO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그에 앞서 조영식 박사는 1997년 10월 유엔총회 초청 연설에서 "세계 평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때 지속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NGO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후 부트로스-갈리, 코피 아난 등 역대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유엔 승인 아래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99서울NGO세계대회는 107개국 1,360개의 NGO 활동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NGO 대회였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라는 구호 아래 6일간 토론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지구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전 세계 시민사회는 경희의 제안에 따라 '서울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NGO세계대회는 경희의 평화정신을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평화의 제전이었다.

지구적 존엄 구현하는 21세기 경희의 미래

경희대학교는 21세기로 접어들어 개교 6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았다. 개교 60주년을 준비하며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했다.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존엄의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오랜 성찰 끝에 경희는 고등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구적 차원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문화세계 창조'의 창학정신,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편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2009년 5월 18일, 경희는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 비전과 목표를 대내외에 밝혔다. 그간의 경이로운 성과를 토대로, 개교 80주년 이전까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한다는 것이 경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다.

이를 위해 2011년 경희는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설립해 교양교육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또한 대학과 의료기관, 행정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통괄기구 글로벌봉사팀(GVT, Global Volunteer Team)을 결성해 사회공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이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지구적 존엄 구현'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21세기 비전과 목표로 설정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의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UN 세계평화의 날 경희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매년 9월 21일 전 세계에서 평화 염원하는 축제 거행

매년 9월 지구적 난제 해결 위한 국제학술회의

‘Peace BAR Festival(PBF)’ 개최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 (IAUP)
제6차 대회에서 조영식
박사는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매년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평화의 축제가 거행된다. 그러나 이 뜻깊은 기념일이 경희의 제안과 노력에 의해 제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 마지막 날. 연단에 오른 조영식 박사가 담대한 제안을 했다.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

‘세계평화의 날’ 최초로 제안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세계의 지성들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사상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스타리카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조 대통령의 도움으로 유엔에 안건을 제출했다.

당시 세계는 동·서 양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그 탓에 안전 통과 여부가 매우 불확실했다. 조영식 박사는 뉴욕에 머물며 유엔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외무장관, 언론사 발행인, 노벨상 수상자, 로마 교황 등 전 세계 지도급 인사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 캠페인’도 펼쳤다. 그때 발송한 편지는 무려 2,000통이 넘었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981년 11월 27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스마일 키타니 의장은 표결을 사흘 뒤로 미뤘다. 몇몇 국가가 안전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영식 박사도 다수결 통과를 원치 않았다.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라면서 만장일치를 주장했다. 표결이 미뤄진 사흘 동안 조영식 박사는 반대 의사를 밝힌 대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호소했다.

‘30년보다 더 길었던 3일’이 지나고, 마침내 11월 30일. 개회를 선언한 유엔총회 키타니 의장이 입을 열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 이 평화안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가?”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키타니 의장은 사회봉을 세 번 두드리고 만장일치 통과를 선언했다.

총회가 끝난 뒤 키타니 의장이 조영식 박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석학들로부터 ‘세계평화의 날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무수히 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1,000통이 넘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그토록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세계평화의 해 맞아 미국과 소련, 평화의 메시지 전달

유엔총회는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도록 권했다(세계평화의 해는 1986년으로 정해졌고, 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됐다). 경희대학교는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현재는 ‘Peace BAR Festival’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에 의해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된 1986년 1월 1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서로 상대국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던 때 벌어진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는 그해 11월 양국이 핵무기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 후 양국 간의 군비경쟁이 완화됐으며,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져 내렸다.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세계평화를 위한 경희의 의지는 평화복지대학원(광릉캠퍼스)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4년 9월 25일 열린 개원식 겸 입학식에는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국제사회 지도자와 평화 관련 기관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평화에 대한 학술적 깊이와 실천역량을 갖춘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모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교수 1명당 학생 3~4명의 비율로 엘리트 교육을 강화했다. 매 학기 세계 석학을 초빙해 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94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만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경희가 주도해 온
세계평화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학술과 실천을 결합한 인턴십을 의무화하고 국내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학생들을 파견해 경험을 쌓게 했다. 현재 졸업생 3명이 유엔의 정직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 편찬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평화학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이 세계 어느 도서관에도 없었던 것이다. 곧바로 <세계평화대백과사전>(영문판) 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명예편집장으로 초빙하고, 40개국의 세계적 석학 350여 명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전4권) 초판은 1987년에 간행됐다. 개정·증보판은 개교 50주년인 1999년에 완간됐다. 전8권, 총 3,8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사전 편찬 작업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2011년,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는 유엔과 공동으로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UNAI의 제안으로 성사된 국제회의는 그해 9월 15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UNAI는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유엔공보처(UNDPI) 산하 기구다. 국제회의의 주제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였다. 경희대 조인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희의 모습을 소개했다.

학생, 시민도 참여하는 지구촌 평화축제, Peace BAR Festival(PBF)

경희는 개교 60주년(2009년) 이후 매년 9월 21일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개최해 온 Peace BAR Festival(PBF)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했다. 세계적 싱크탱크, 국내외 석학, 시민사회와 연계해 기후 위기를 비롯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며 목표를 새로이 했다.

예컨대 2018년 9월에 개최된 PBF는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을 주제로,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WAAS),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UN, CoNGO)과 함께 그해 4월 판문점 선언이 불러온 한반도의 봄을 '문명 전환'의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구

현하는 철학과 가치를 모색했다.

첫날에는 '사라지는 빙하: 기후변화와 세계평화(A Farewell to Ice: Climate Change and Global Peace)'를 주제로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강연에 이어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 미원석좌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와담스 교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온 기후변화 분야 석학이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별강연 및 원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인류 평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조명했다. 폴란드에서 온 아담 미치니크(Adam Michinik)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 편집장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 강연을 했으며, 조인원 총장과 피터 와담스(Peter Wadhams)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아담 미치니크 편집장이 원탁회의를 가졌다.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UN 세계평화의날 제정 40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PBF 2021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바이러스 창궐, 생명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문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다. PBF 2021에는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 클럽 회장, 폴 R. 엘리히 스탠퍼드대 교수, 아비 로브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 한스 요하임 쉘른후버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희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지구 문명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 이후 매년 9월 PBF가 열리는 한 주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2024년 미원평화상(Miwon Peace Prize)을 제정했다. 미원평화상은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공적을 기리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첫 수상의 영예는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을 목표로 세계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디 엘더스(The Elders)'에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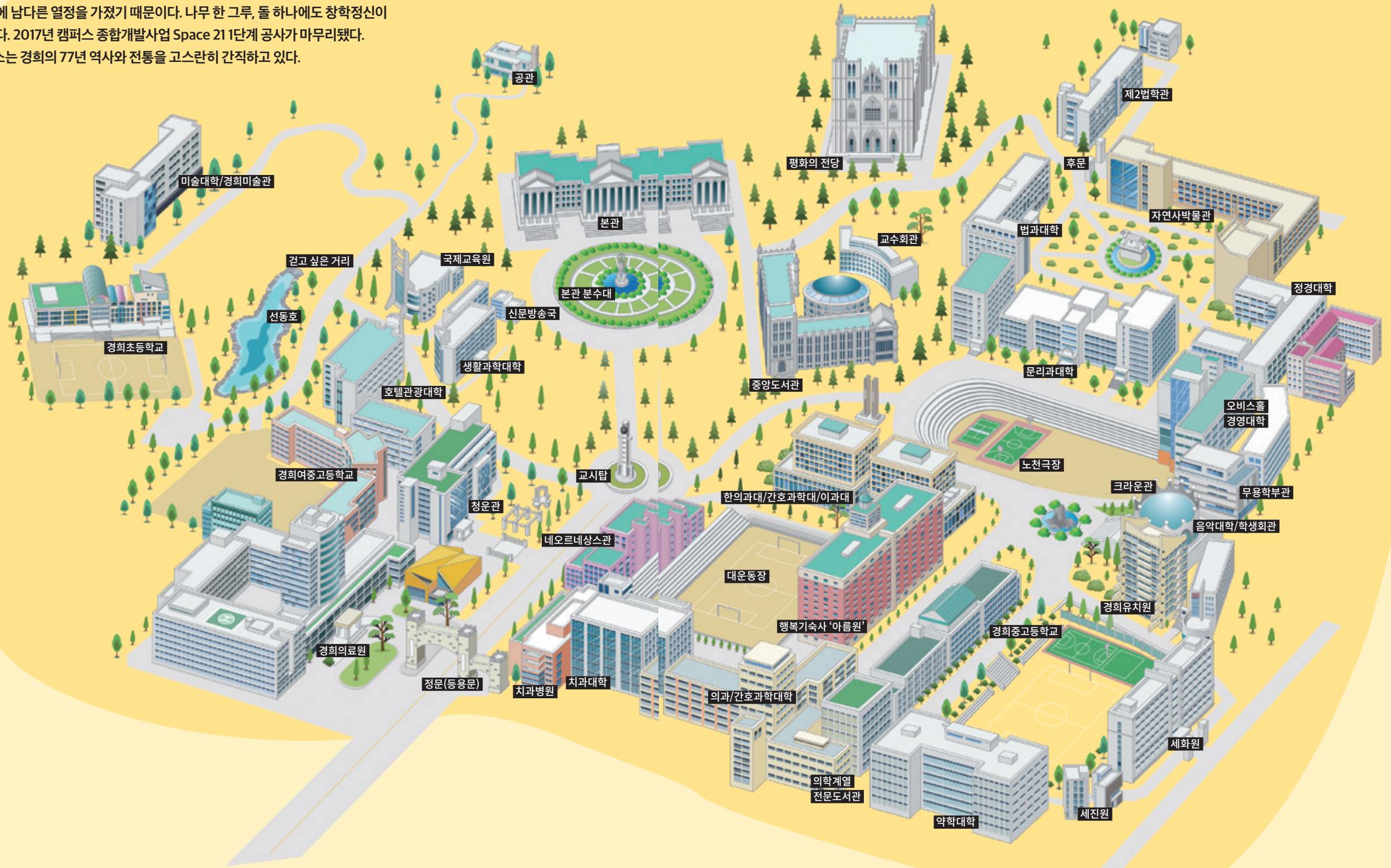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에서 조인원 총장은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출발부터 남달랐다. 1953년 국내 대학 최초로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각종 건물과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섰다. 서울캠퍼스에 숲이 많은 것은 경희대가 설립 초기부터 자연 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도 창학정신이 깃들어 있다. 2017년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캠퍼스는 경희의 77년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TEL 02-961-9311, 9339~40
FAX 02-961-9305
khsa0036@khu.ac.kr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TEL 031-201-3401~4
FAX 031-201-3409
khwc5871@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401호
연구소 TEL 02-961-2398
소장실 TEL 02-961-2397
후마니타스 전환센터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인문정보센터
글로벌인문융합연구센터

글쓰기센터

서울캠퍼스 청운관 206B호
TEL 02-961-0991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805호
TEL 031-201-3429

글로벌봉사팀

서울캠퍼스 TEL 02-961-2213
국제캠퍼스 TEL 031-201-3581

경희의 상징



대학 휘장

경희를 공식 대표하는 상징 요소. 경희의 창학 이념과 미래상을 표현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경희를 의미한다.



워드 마크

역동적으로 교차하고 상승하는 경희의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로 형상화했다. 자유로운 소통, 나눔의 실현, 무한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실천적 선구자를 상징한다.



교화 | 목련

경희의 교화는 목련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목련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아름다움, 너그러움, 하나 됨의 미덕도 지니고 있다. 웃는 사자와 더불어 목련은 경희의 문화적 서사를 표현한다.



상징 동물 | 웃는 사자

당당한 모습이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웃는 사자', 바로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웃는 사자는 강인함과 관용을 의미한다. 사자 캐릭터 마크에는 햇불과 비둘기의 모습도 담겨있다. 창의성과 진취성, 평화의 정신을 담았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